태백문화

2013 통권 제25집

http://www.taebaekculture.com

태백산천제단(중요민속자료 제228호)

태 백 문 화 원

태백문화
2013 통권 제25집
http://www.taebaekculture.com

COVER STORY **태백산천제단**

중요민속자료제228호
지정일자:1991년10월23일
소재지:태백시 소도동 산80 및 혈동 산87-2

설명:

태백산과 천제단은 민족의 영산이요,
전통문화의 중심공간이다.
이곳은 신성한 공간이요, 동시에
제의의 공간이다.

CONTENTS

005 · 권두시
천제 / 양진모

006 · 권두휘호
閑居卽事(한거즉사) 옥봉선생 시

007 · 발간사 _ 김해운

008 · 축사 _ 염동열 / 김연식 / 고재창 / 김일종

전통제례

014 · 태백산천제

015 · 낙동강발원제

016 · 낙동강발원수채수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017 · 토들러 동작놀이교실/노래교실/요가교실/하모니카교실/스포츠댄스교실/서예교실

문화사랑방

023 · 우리 문화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_ 난타 / 구전가락공연

나눔의 장

025 · 문화학교에서 배운 솜씨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장 _ 난타공연 / 구전가락공연

027 · 기획프로그램 _ 청소년스마트폰 사진공모전 / 전통음식솜씨대회

029 · 문화유적지를 통한 우리 역사 바로알기 _ 문화유적지탐방

태백문화

The Taebaek Culture Journal

2013 ANNUALLY / vol. 25

문화논단

032 · 아라리의 기원과 어원에 관한 연구 _ 김강산

065 · 태백시 地名 중 '백석' 考 _ 윤순석

080 ·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_ 이상출

문화칼럼

86 · 봄눈 내린 검용소 숲길, 지구의 온난화와 태백 _ 송은영

90 · 영어열풍 _ 김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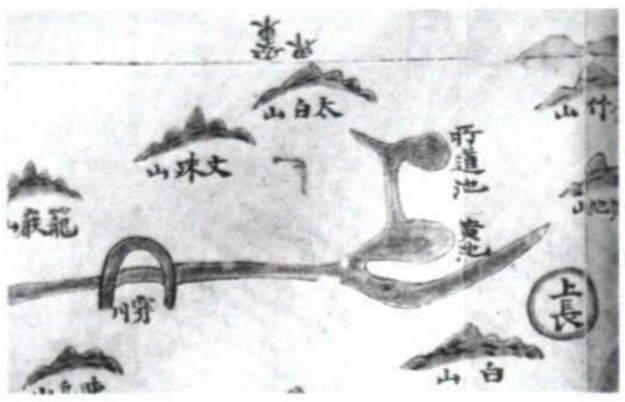
문화기고

096 · 동이 _ 은영선

117 · 청소년스마트폰사진공모전 지상전

127 · 태백문화원 연혁

129 · 태백문화원 임직원 및 문화학교강사



2007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 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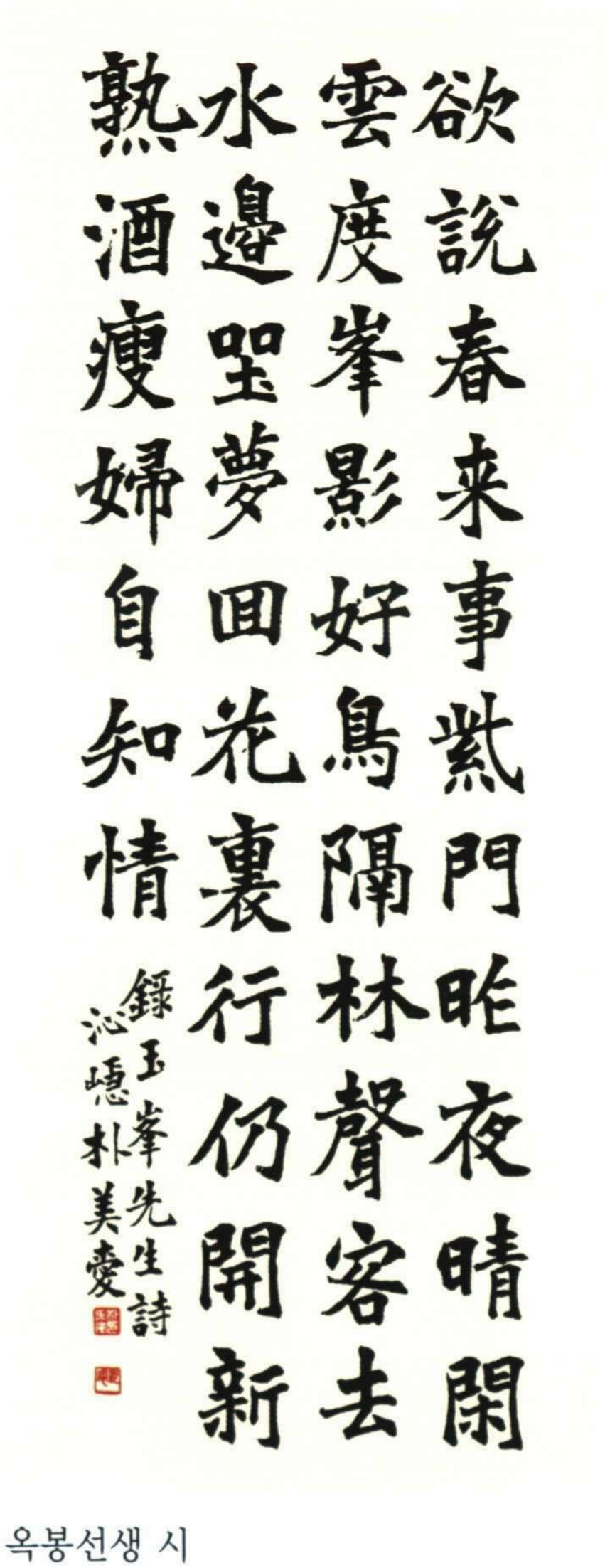
천 제

양 진 모

안개구름 소원 비는 날
혼 불 켜고 앉으니
미운 마음도 고운 마음도
저 원탑의 돌처럼
천향 천주를 받아든
이십 팔 성좌
금줄 가득 모은 소원
날개 달고
하늘로
하늘로
날아오르네

시인 양 진 모

– 2006년 좋은문학 등단
– 2008~현재 한마음문학회 회장
– (주)의정산업 대표이사



欲說春來事(욕설춘래사)
봄이 오는가 했더니
紫門昨夜晴(자문작야청)
문 밖에는 밤비가 개었구나
閑雲度峰影(한운도봉영)
구름은 산봉우리에 그림자 놓아 가고
好鳥隔林聲(호조격림성)
새는 숲 속에 숨어서 운다
客去水邊坐(객거수변좌)
나그네는 시냇물을 건너가 앉아 있고
夢回花裏行(몽회화이행)
나는 꿈길에서 꽃 속을 돌아나온다
仍開新熟酒(잉개신숙주)
새로 익은 술을 권하니
瘦婦自知情(수부자지정)
늙은 아내가 이 마음을 알아 준다

옥봉선생 시

심은 박미애

강원 서예 대전 초대 작가
태백 노인 복지관 서예 강사
보건소. 장애인 복지관. 문화원 서예 강사
태백 서예 동우회 회장

강원 서예 대전 우수상
탄허 대종사 선서 함양 전국휘호대회 특선
전국 휘호 대회(국서련) 3회 입선

김 해 운
태백문화원장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문화융성!

모든 민족과 국가들은 문화와 예술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문화와 인간의 창의적 노력으로 지어진 예술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지극한 염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문화를 융성케 한다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이 바로 여기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삶의 질이 의식주에 치중했던 지난 몇 십년간의 세월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황폐화되고 가치기준이 변절되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우리네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거칠어진 심성을 다시금 순화시켜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또 일 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계획과 열정으로 희망에 차 있었던 시작이었지만 세상사 그렇게 마음대로 되어 지질 않고 아쉬움만 남는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나 예년보다는 의욕적이었고 많은 경험으로 새로움을 가졌던 일 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 년 동안 분주했던 우리 문화원의 여러 모습들을 모아 기록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걸어 온 모습들이 훗날 단편적인 추억이 아닌 작은 역사로나마 들추어질 것에 소중한 마음을 갖습니다.

태백문화원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의 문화를 가꾼다는 자부심으로 더 많은 사랑과 충고를 함께 기대합니다.

염 동 열
국회의원

태백문화 제25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염동열 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일찍 찾아온 첫눈으로 인해 겨울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이러한 한파 속에서 따듯함과 풍성함으로 우리마음을 가득 채워줄 태백문화 25집 발간 소식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태백문화원은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태백시민들의 문화적 소양 함양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중요 제례 행사와 제사를 주관하며, 주민 참여형 대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 참여를 유도하고, 태백시의 전통적인 문화를 보존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백의 역사와 전통을 잘 간직하고 알림으로써 전통문화와 고유의 정신을 후세에 계승시켜서 새롭고 희망찬 태백의 내일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의 시대를 맞이하여 태백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태백문화 장화윤 편집인님을 비롯한 모든 태백문화 가족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태백문화 25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태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태백의 내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 연 식
태백시장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해 태백산천제를 비롯해 낙동강발원제 등 우리지역 향토문화 활동을 총결산하는 「태백문화 2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해운 태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태백문화집 발간으로 태백시민들이 지역 문화세계를 이해하고 지역향토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태백문화원이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구심점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태백문화 제25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노력을 기우려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재 창
태백시의회의장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의장 고재창입니다.

우리고장 태백의 풍성한 문화 소식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생생히 담아 낸 『태백문화 제25집』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문화진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오신 김해운 태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고장인 태백은 고원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역사와 전통, 지역민의 생활상 등이 고스란히 반영된 독창적인 향토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러한 향토문화는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 계속 보존 ·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뜻을 새기고자 매년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태백문화 제25집』 은 우리지역 향토문화에 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중한 문화자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바쁜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삶의 여유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향토 문화 소식과 지식을 전달하여 태백문화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태백문화 제25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태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일 종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태백문화』창간 25주년을 태백시 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 함양을 위해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 오신 김해운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태백문화』는 탄전지역이라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 넘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태백시민의 문화적 자존심이 되고자 자처하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정신 · 문화적 토양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다하며 25년이라는 연륜을 쌓아 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은 태백시민의 영혼의 샘이었으며, 정신적 자양분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의 곳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태백문화의 역할과 정신은 더욱 승화되고 발전되어 태백시의 문화 융성을 이루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태백은 과거 탄전지대를 형성하며 도시가 성장하였으나 이제는「고원 관광. 레저 스포츠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태백시민들의 삶의 양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탄전지대를 이루며 고단한 삶의 질곡을 겪으며 지내온 세월도 우리가 단순히 지나간 과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에는 그러한 역경과 고난이 있었고 그러한 것이 곧 삶이고, 삶의 다양한 모습이 곧 문화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과거의 어두운 생활상이지만 숨기고 감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부각시키고 돌이켜보게 함으로써 태백문화는 한단계 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태백문화 제25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활상, 풍토, 언어, 자연조건, 문학, 예술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태백은 태백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 그것을 선명하게 하고 가치 있게 다듬어 내는 것이 『태백문화』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태백문화』의 역할을 통하여 태백시의 가치가 존중되고 태백시의 미래가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태백문화』는 지역민의 정신을 대변하고 진솔한 학술 연구적 자세로 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여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소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공감과 배려」의 교육적 아젠다를 위하여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쓰고 있는 우리 태백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학교문화 정착’ 이라는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언제나 깊이 있는 연구와 진솔한 문화적 담론을 통하여 태백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양심과 지성을 대변하며, 태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되어지는 문화적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비젼을 제시하여 지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 거듭 발전하는 태백문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태백문화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리며, 태백문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태백문화 그 현장!

전통제례를 통한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

태백산천제
낙동강발원제
낙동강발원수채수제

유아들을 위한 놀이교육

태백문화원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엄마와 유아들의 동작놀이
토들러 동작놀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민들의 평생교육으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
노래교실 / 요가교실 / 하모니카교실 / 스포츠댄스교실 / 서예교실

문화사랑방

우리 문화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난타/구전가락공연

나눔의 장

문화학교에서 배운 솜씨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장
난타공연/구전가락공연

기획프로그램

청소년스마트폰 사진공모전/전통음식솜씨대회

문화유적지탐방

문화유적지를 통한 우리 역사 바로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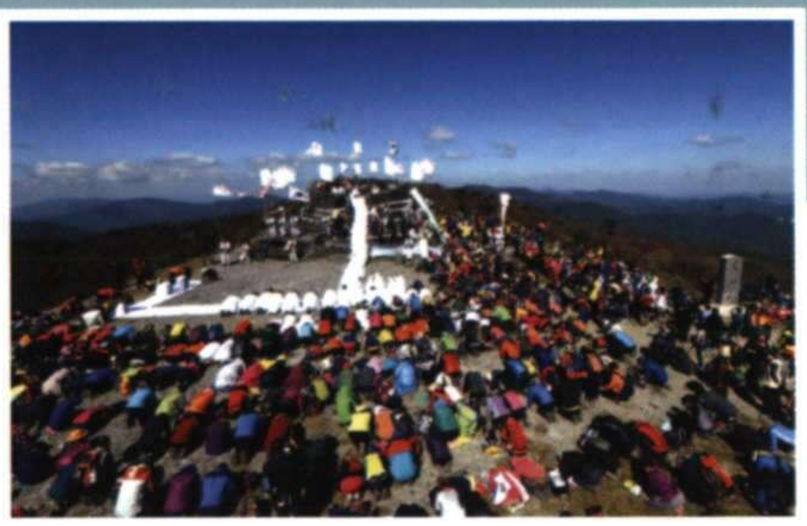
전통제례를 통한 정체성과 자긍심고취

太白山天祭

태백산은 역사적으로 태고로부터 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천애민사상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한 결의를 행했으며 나아가 국운의 융성을 이루려는 염원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1987년부터 태백문화원이 주축이 된 태백산천제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10월3일 개천절에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민족시원을 통해 전 인류의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뜻 깊은 제례이다.

백두대간의 중심이 되는 태백산에서 봉행되는 태백산천제는 매년 이 날에 전국의 참배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세계평화와 국운융성을 기원하는 태백시와 태백문화원의 자랑이자 그야말로 산상성시를 이루는 우리들의 자긍이요, 정체이다.



낙동강발원제

물을 안고 민족과 국가가 융성해 왔다.
우리 태백은 삼강(한강,낙동강,오십천)이 발원하는 그 태동의 역사이자 자랑스러운 땅이다.

천혜의 복된 이 땅의 소중함과 물의 흐름으로 한반도를 적시는 은혜로움에 감사하여 태백문화원이 시작하여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오는 성스러운 제례이다

낙동강발원수채수제

낙동강1300리 유역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발원수채수제는 낙동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하구의 부산의 시민들까지 강의 풍요로움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원하는 제례행사이다.

매년 부산광역시 북구청에서 개최되는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대축제"의 일환으로 축제 관계자들이 이곳 태백의 낙동강발원지 "黃池"에서 발원수를 채수하여 가는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태백문화학교

1998년 3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로 지정된 태백문화학교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일에 앞장서 왔다.
시대에 맞는 과목으로 변해오면서 유아에서 노년층에 이르는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평생학습의 현장이다.

유아들과 엄마를 위한 놀이교육

토들러동작놀이교실

태백문화원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14개월에서 4세까지의 유아들과 엄마들이 함께 놀이기구를 통해 지능개발과 신체발육과 유대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감소에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특별한 감성교육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다.

노래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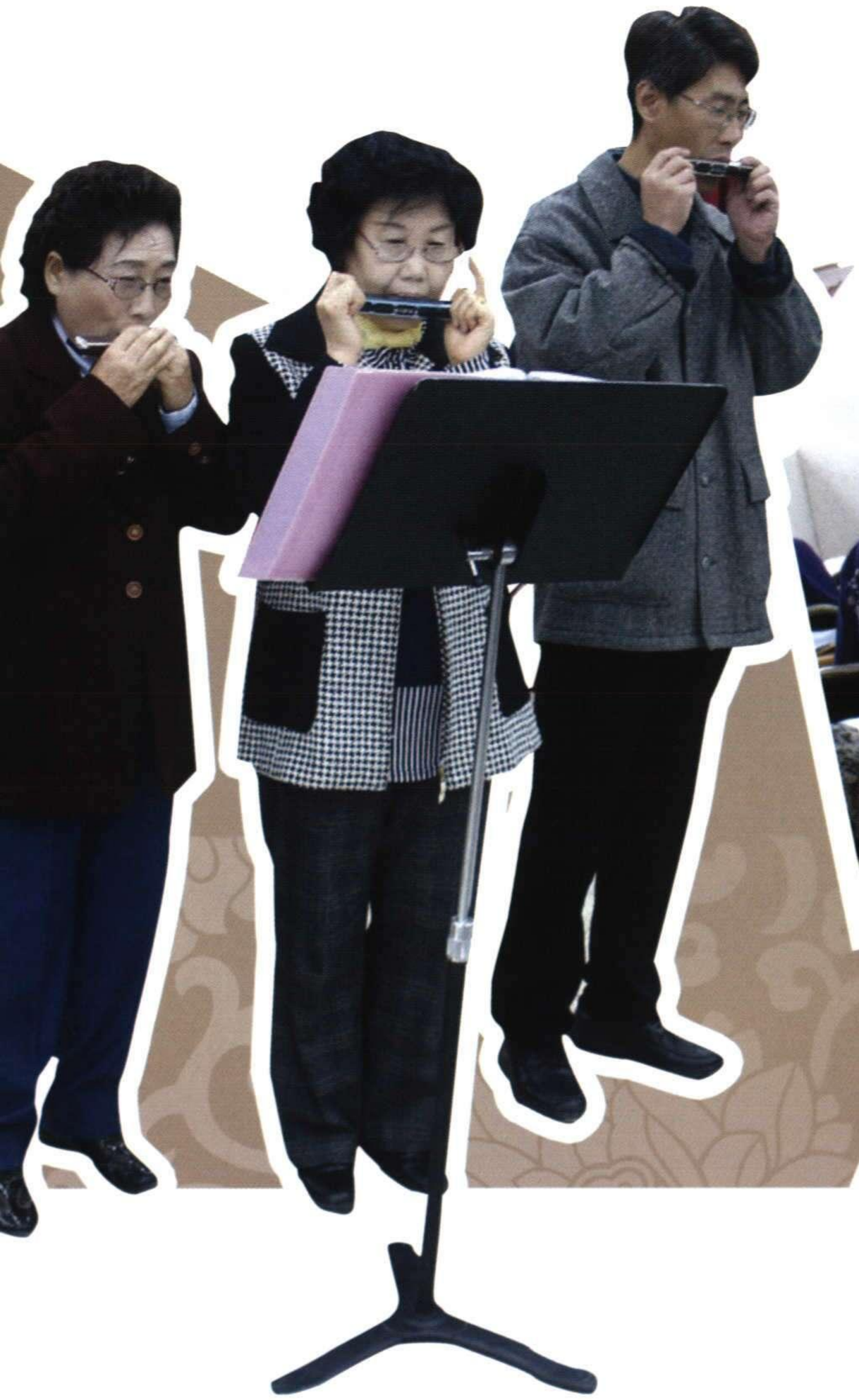
노래부르기를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고 대화의 장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만남의 교실이다.

율동과 함께 배우는 노래는 많은 이들의 호응으로 인기만점 강좌이다.

요가교실

운동부족으로 인한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삶을 위한 신체활동 교실.
가사활동으로 인한 여성들의 신체적 결함을 교정하고 정신적 힐링을 하는 강좌이다.

하모니카교실

악기를 다루면서 성취감과 음악적 감성을 통한
자기계발의 강좌로서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인기강좌이다.

스포츠댄스교실

댄스를 스포츠로 연결시켜 율동과 춤을 배우는 강좌.

서예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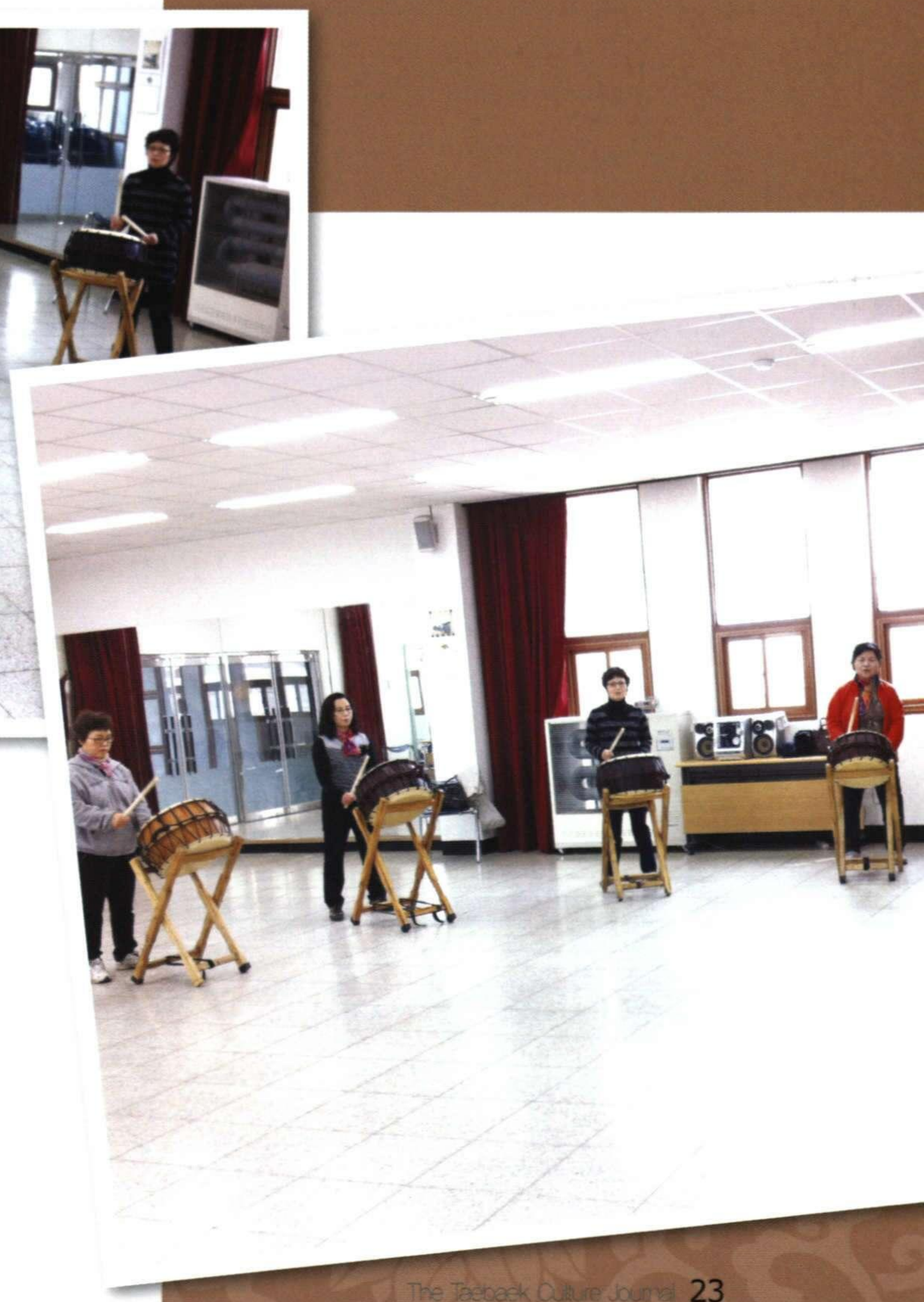
문자를 매개로한 자신의 심성을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서예가 21세기의 정신가치가 더욱 존중되어야 하는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강좌로,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형식의 서예를 통해 옛것을 익히며 정신함양과 느림의 미학을 배우는 교실이다.

문화 사랑방

우리 문화원 소속의 동아리들의 공간이요, 학습현장이다.

난타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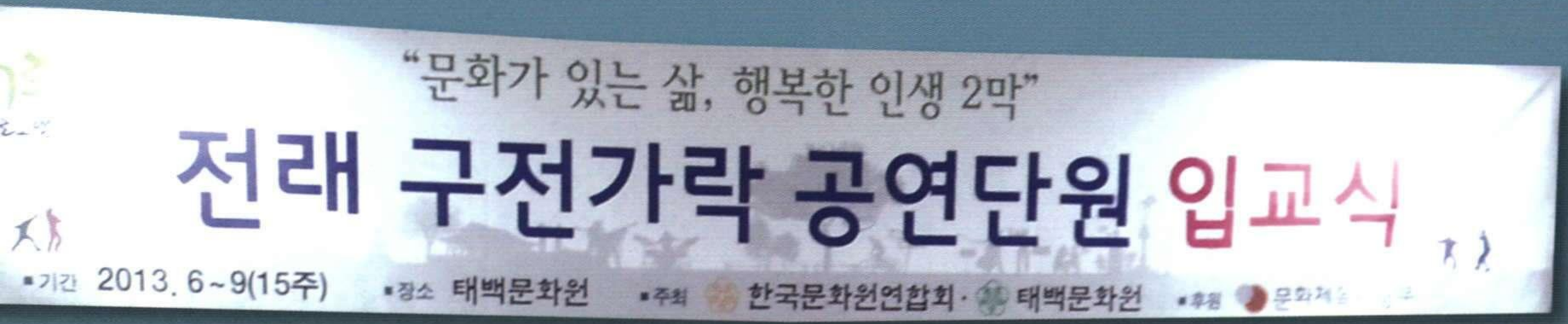
난타를 통한 음악적 소양을 키우고 율동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한국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다.

구전가락교실

전래되는 우리 지역의 가락을 배우면서 지역특성에 대한 공부와 함께 전통 가락을 이어가는 교실.



나눔의 장

문화학교에서 배운 솜씨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장

난타공연

문화사랑방에서 배운 솜씨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NANTA

한국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다.

구전가락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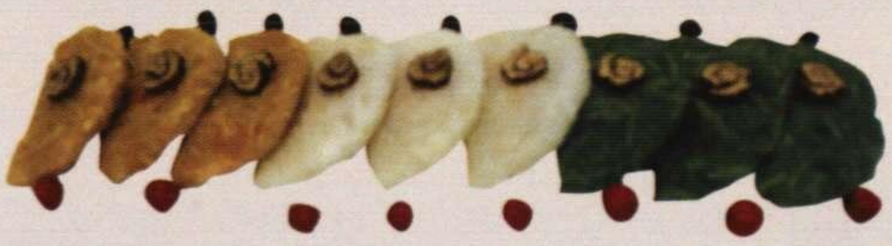
한 정
한정식전문
553 - 1331
태백문화원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인생 2막"
전래 구전가락 공연

강원도 어르신 멋~
한마당 잔치
일시 : 2013. 11. 7(목) 11:00
장소 : 춘천인형극장

전래 구전가락 공연

전통음식솜씨대회

외래문화의 범람 속에 우리의 식생활도 외래음식에 점령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 음식의 더 나은 발전과 보급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재료들로 순수한 우리전통을 되살리고 나아가 시대에 맞는 음식문화를 창조, 보급하기 위한 대회이다.



문화유적지를 통한 우리 역사 바로알기

문화유적지탐방

그리고...

설레던 개강식이...

어느덧 수료식!

이사회

태백문화
The Taebaek Culture Journal

문화 논단

아라리의 기원과 어원에 관한 연구 _ 김강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_ 이상출

태백시 地名 중 '백석' 考 _ 윤순석

문화 논단

아라리의 기원과 어원에 관한 연구

김강산(태백향토사연구소장)

목 차

Ⅰ. 서 론
1. 아리랑의 기원과 어원
2. 아리랑의 본디 말 아라리
Ⅱ. 본 론
1. 왕조의 멸망
가. 살육의 멸망
나. 평화적 멸망
2. 난리와 산유화가(메나리)
3. 백제의 멸망
4. 부여의 메나리
5. 고려의 멸망
6. 삼척의 메나리
7. 메나리와 아라리의 동질성
8. 아라리의 형성
9. 삼척메나리에서 파생된 아라리
10. 아라리의 어원
가. 아라리가 났네
나. 아, 난리가 났네
다. 목(고개)을 넘겨 주소
Ⅲ. 결 론

Ⅰ. 서 론

서기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등재되었다. 아리랑이 포괄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선아리랑과 전라도를 대표하는 진도아리랑 경상도를 대표하는 밀양아리랑과 그밖에 2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아리랑이 포함되어 있다.

근대적 우리 민요의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단연 아리랑이 될 것이다.

개화기를 거치면서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노래로 잘 알려진 아리랑은 서민의 애환을 담은 민중의 노래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아리랑은 그 시대의 민중들과 같이하며 무수한 가사가 만들어져 그 가사만 보아도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김연갑의 〈아리랑〉을 보면,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는 아리랑의 종류가 무려 198개

나 채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방대한 아리랑의 종류에 놀라울 뿐만 아니라 단일 곡목으로는 세계에서 아리랑만큼 가지 수가 많은 곡도 없을 것이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기도 한다.[1)]

이렇듯 아리랑이 우리겨레를 상징하며 자타가 인정하는 노래이다 보니 학자들이나 뜻있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진작부터 그 기원과 어원에 대하여 두루 연구되어 그에 대한 연구논문만도 수 십 건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리랑의 기원이나 어원에 대한 믿음직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논리로 저마다의 생각을 펼치다 보니 수십 가지의 논문이 나왔다고 보며, 아직까지도 어느 학설이 정설로 굳어진 바도 없다.

그러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리랑의 기원과 어원은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도 아리랑의 기원과 어원에 궁금증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 아리랑의 시원이라 할 정선아라리(아라리)를 중심으로 평소 연구한 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아리랑의 기원과 어원

아리랑의 기원과 어원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에 있어 왔다. 김연갑의 〈아리랑〉의 '아리랑 어원에 관한 학설' 표를 인용하면,

	학 설	요 지	고 증 방 법	발 생 시 기	해 석 의 태 도	학 자
1	후렴 說	助興의 구실	例 示	古 代	固有語的 해석	任東權
2	아린 說	女眞語의 '아린'에서 유래됨	비교언어학적 방법	古代	固有語的 해석	李圭泰
3	卵郎(알랑) 혹은 卵郎說	童男總角 혹은 童女處女의 뜻	古語에 의한 類推的 方法	中古代(未詳)	固有語 固有語的 해석	崔載億

1) 진용선. 러시아 고려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09

	학 설	요 지	고 증 방 법	발 생 시 기	해 석 의 태 도	학 자
4	아리다說(疼痛)	알흐다→알히다→아리다 즉 「아리+ㄹ+앙」에 의한 아린고개	古語에 의한 形態論의 분석	朝鮮 中期	固有語的 해석	元勳義
5	樂浪(아라)說	樂浪에서 南下하는 交通路의 관문인 慈悲嶺의 이름 즉 아라의 轉音	역사적 사실에 의한 類推說	古代	地名的 해석	李丙燾
6	아라嶺 說	발〉붉〉알의 轉音, 알〉아리,얼〉어리, 올〉오리, 울〉우리	地名에 의한 문헌적 고증	古代	固有語및 漢字의 혼합적 해석	梁柱東
7	閼英(알영)說	閼英井 및 閼英川에서 나온데서 유래된 朴赫居世의 妃名인 '알령'에서 轉音	三國遺事 및 三國史記를 근거로한 전설에 의한 유추설	古代	固有語的 해석	金志淵
8	阿娘說	阿娘의 寃鬼說 즉 '아랑'의 轉音	傳說에 의한 類推說	中古代(未詳)	漢字的 해석	金載璹
9	我離娘說	妻와의 離別을 슬퍼하는 뜻에서 유래됨	傳說에 의한 類推說	近代(大院君時)	漢文的 해석	金德長
10	我耳聾說	'나는 귀가 먹었다'에서 유래	傳說에 의한 類推說	近代(대원군 時)	漢文的 해석	南道山
11	我難離說	가정을 떠남의 어려움을 읊음에서 유래됨	傳說에 의한 類推說	近代(대원군 時)	漢文的 해석	姜大鎬
12	啞而聾說	벙어리며 귀머거리	口碑的 방법	近代(대원군 時)	漢字的 해석	權相老
13	俄.美.日.英說	俄.美.日.英을 경계하자는 데서 유래됨	傳說에 의한 類推說	近代(대원군 時)	漢字的 해석	일본학자
14	兒郎偉說	上樑文의 「兒郎偉抛樑棟」에서 유래됨	口碑的 방법	中古代(未詳)	漢字的 해석	최근이론

	학 설	요 지	고 증 방 법	발 생 시 기	해 석 의 태 도	학 자
15	알리오	「누가 내 마음을 알리오」에서 알리오→아리→아리랑으로	口碑的 방법	古代	固有語的 해석	정선군민
16	아리고 쓰리다	〈아리고 쓰리다〉 즉〈아리고 쓰리다〉에서 國語의 造音方式에 의해 〈아리랑〉〈쓰리랑〉으로 轉成名詞化	國語造語論的 方法	朝鮮 中期	固有語的 해석	徐丙夏
17	메아리 說	뫼(山)아리→아리→아리랑→뫼나리→山遊花→메나리	종합적 방법	古代	종합적 해석	김연갑
18	얄리얄리 說	얄리얄리〉아리아리	類推的 方法	中古代	固有語的 해석	鄭益燮
19	我離郎說	여래십대발원문 가운데 「願我永離三惡道」에서 '我'와 '離' 「花郎」에서'郎' 유래해서'我離郎'	佛教說話에 의한 類推說	古代	漢文的 해석	宋寅成
20	아리람 쓰리람 神 說	印度의 아리람 쓰리람 神에서 유래	佛教의 流入으로 민요로 발전	新羅 時代	宗教的 해석	李源永

상기의 표와 같이 많은 학설이 있다.[2)]

하지만 어느 학설이 우위에 있고 어느 학설이 열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각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리랑에 관한한 정설이 없으며 백가쟁명식(百家爭鳴式)으로 유추하고 조문(造文)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金練甲. 아리랑. 現代文藝社. 1986

2. 아리랑의 본디 말 아라리

아리랑의 본디 말은 아라리이다. 정선 아리랑도 본디 이름은 아라리였다. 지금도 원주민들은 아라리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아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후렴구에서 딴 후대의 이름이 아닌가 한다. 아리랑의 후렴구에 '아리 아리 아리랑' 또는 '아리랑 아리랑' 등에서 취한 것이라고 본다.

아라리도 후렴구에 '아라리가 났네' 또는 '아라리요'라는 가사가 있으니 여기에서 취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선 아리랑도 처음에는 정선 아라리 이였다가 나중에 정선 아리랑으로 변한 것이라는 것은 정선뿐만 아니라 삼척 태백 동해 강릉 등 강원도 원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아리랑으로 굳어진 것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정식 명칭이 된 것인가?

그것은 근대 민요가 정착되면서 나운규의 무성영화 아리랑이 상영되고 신민요로 아리랑 계통의 노래가 확산되면서 본래의 이름 보다는 아리랑으로 굳어졌으며 너도 나도 신조류에 영합하게 되었고 소위 선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연구 태만이 불러온 결과이다.

이러다보니 아라리는 아리랑의 방언쯤으로 인식되어 정작 아라리를 연구하는데 상당 부분 왜곡된 것이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리랑의 본디 이름인 아라리로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왕조의 멸망

우리나라의 유사 이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는 백제일 것이다. 고조선이나 삼한시대 부족국가시대 등은 확실한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무어라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따지게 되는데, 서기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그 뒤 8년이 지나 서기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서기918년에 후고구려라 하던 궁예의 태봉국이 멸망하였고 서기926년에는 발해가 멸망하고 서기935년 신라가 멸

망하며 1년 뒤인 서기936년에 후백제가 멸망 한다. 세월이 흘러 서기1392년에 고려가 멸망하고 서기1910년 조선이자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된다.

여기에서 왕조의 멸망은 백제가 처음이자 그것도 외세에 의해 멸망 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멸망 뒤에 수만 명이 적지로 끌려가는 처절한 난리(亂離)의 현장이었다.

당시에 백제의 멸망은 대단한 충격이었고 난리 가운데 난리였을 것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난리(전쟁)가 있었지만 한 왕조가 멸망하는 난리를 겪은 것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백제가 멸망한 뒤 남아 있던 백성들은 일부는 터전을 지키며 눌러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피폐해진 난리를 겪은 뒤 터전을 떠나 전국으로 흩어졌을 것이고 아울러 멸망의 생생한 증언이 함께 퍼져나갔을 것이다.

가. 살육의 멸망

백제가 멸망하면서 끝까지 항전하며 수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마지막엔 수만 명이 집단으로 적진으로 끌려갔다.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장군의 결사대 5000명이 몰살당하였고 금강하구전투 웅진성 전투 사비성전투에서 수만 명이 죽으며 항전하였지만 끝내 왕이 항복하였다. 그 뒤 부흥운동이 있었으나 실패하고 피 흘린 멸망이 되고 말았다.

8년 뒤에 멸망한 고구려도 백제와 마찬가지로 당나라에 패해 멸망하였으니 외세에 의해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끌려가는 대 참사였다.

후고구려라 하던 태봉국의 궁예는 부하였던 고려의 왕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던 공양왕도 부하이던 이성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나. 평화적 멸망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는 신라는 망할 때 경순왕이 고려의 왕건에게 항복하고 나라를 바쳤다. 나라를 바치기 전에 백관회의를 열어 결정했는데, 태자인 마의태자가 불복하여 금강산 부근에서 항전하였다고 하며, 강원도 강릉과 속초 인제 고성 등 북부 동해안을 따라 전설과 일부유적이 전한다.

후백제의 견훤도 신라의 경순왕처럼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였으나 아들들이 불복하기도 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2. 아리랑의 본디 말 아라리

아리랑의 본디 말은 아라리이다. 정선 아리랑도 본디 이름은 아라리였다. 지금도 원주민들은 아라리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아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후렴구에서 딴 후대의 이름이 아닌가 한다. 아리랑의 후렴구에 '아리 아리 아리랑' 또는 '아리랑 아리랑' 등에서 취한 것이라고 본다.

아라리도 후렴구에 '아라리가 났네' 또는 '아라리요'라는 가사가 있으니 여기에서 취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선 아리랑도 처음에는 정선 아라리 이였다가 나중에 정선 아리랑으로 변한 것이라는 것은 정선뿐만 아니라 삼척 태백 동해 강릉 등 강원도 원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아리랑으로 굳어진 것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정식 명칭이 된 것인가?

그것은 근대 민요가 정착되면서 나운규의 무성영화 아리랑이 상영되고 신민요로 아리랑 계통의 노래가 확산되면서 본래의 이름 보다는 아리랑으로 굳어졌으며 너도 나도 신조류에 영합하게 되었고 소위 선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연구 태만이 불러온 결과이다.

이러다보니 아라리는 아리랑의 방언쯤으로 인식되어 정작 아라리를 연구하는데 상당 부분 왜곡된 것이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리랑의 본디 이름인 아라리로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왕조의 멸망

우리나라의 유사 이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는 백제일 것이다. 고조선이나 삼한시대 부족국가시대 등은 확실한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무어라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따지게 되는데, 서기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그 뒤 8년이 지나 서기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서기918년에 후고구려라 하던 궁예의 태봉국이 멸망하였고 서기926년에는 발해가 멸망하고 서기935년 신라가 멸

망하며 1년 뒤인 서기936년에 후백제가 멸망 한다. 세월이 흘러 서기1392년에 고려가 멸망하고 서기1910년 조선이자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된다.

여기에서 왕조의 멸망은 백제가 처음이자 그것도 외세에 의해 멸망 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멸망 뒤에 수만 명이 적지로 끌려가는 처절한 난리(亂離)의 현장이었다.

당시에 백제의 멸망은 대단한 충격이었고 난리 가운데 난리였을 것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난리(전쟁)가 있었지만 한 왕조가 멸망하는 난리를 겪은 것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백제가 멸망한 뒤 남아 있던 백성들은 일부는 터전을 지키며 눌러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피폐해진 난리를 겪은 뒤 터전을 떠나 전국으로 흩어졌을 것이고 아울러 멸망의 생생한 증언이 함께 퍼져나갔을 것이다.

가. 살육의 멸망

백제가 멸망하면서 끝까지 항전하며 수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마지막엔 수만 명이 집단으로 적진으로 끌려갔다.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장군의 결사대 5000명이 몰살당하였고 금강하구전투 웅진성 전투 사비성전투에서 수만 명이 죽으며 항전하였지만 끝내 왕이 항복하였다. 그 뒤 부흥운동이 있었으나 실패하고 피 흘린 멸망이 되고 말았다.

8년 뒤에 멸망한 고구려도 백제와 마찬가지로 당나라에 패해 멸망하였으니 외세에 의해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끌려가는 대 참사였다.

후고구려라 하던 태봉국의 궁예는 부하였던 고려의 왕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던 공양왕도 부하이던 이성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나. 평화적 멸망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는 신라는 망할 때 경순왕이 고려의 왕건에게 항복하고 나라를 바쳤다. 나라를 바치기 전에 백관회의를 열어 결정했는데, 태자인 마의태자가 불복하여 금강산 부근에서 항전하였다고 하며, 강원도 강릉과 속초 인제 고성 등 북부 동해안을 따라 전설과 일부유적이 전한다.

후백제의 견훤도 신라의 경순왕처럼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였으나 아들들이 불복하기도 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평화적 멸망이란 일부를 제외한 왕과 백성들이 죽지 않고 인계되는 왕조로 대개 국내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2. 난리와 메나리(산유화가)의 전파

유사 이래 최초의 멸망국이 된 백제는 그 멸망의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 지며 상당히 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세인 당나라에게 멸망당하고 왕을 비롯 수만 명이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생생히 보았으니 이 보다 극적인 멸망이 어디 있었겠나 싶다.

이때 사람들이 금강 가의 산에 올라 멀어져 가는 배를 바라보며 통탄과 한탄에 찬 노래로 전송하였으니 바로 산유화가(山遊花歌)이다.

국내에서는 한 왕조가 멸망해도 이역만리로 끌려가는 일은 없고 장소는 달라도 가족과 헤어지는 일은 별로 없다.

하지만 바다 건너 이역만리 당나라로 끌려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할 것이니까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것이며 그 안타까움이란 말로 형언키 어려울 것이다.

백제가 망하고 전국으로 퍼져나간 산유화가는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의 한탄과 망국의 설움을 간직한 멸망가(滅亡歌) 또는 망국요(亡國謠)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추단한다.

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많은 왕조가 멸망하였고 그때마다 백성들은 난리를 겪었으니 단군이래로 900번이 넘는 난리(전쟁)를 겪은 민족이란 말이 있다.

난리 가운데 가장 큰 난리가 백제의 멸망이고 두 눈으로 생생이 본 난리이기에 우리겨레는 이를 잊을 수가 없고 한의 노래가 많은 우리겨레의 정서상 난리의 노래는 당연히 산유화가가 대표적이며 산유화가는 몇 가지로 분화되어 퍼져나갔다고 본다.

메나리라 하지 않고 '산유화'로 전파된 곳은 부여를 중심으로 논산, 공주, 연기, 청양 등과 전라도 지방의 고창, 곡성, 익산 등으로 전파되었으며, '어산영'이란 이름으로는 경상도 지방의 경산, 양산, 울주, 통영, 안동, 울진 등이고 충청도의 괴산 등이 있다.

'메나리' 혹은 '미나리'로 퍼져간 곳은 강원도의 삼척, 홍천, 횡성, 원주, 인제, 양구, 고성, 춘천, 화천, 철원 등이고 경기도의 가평, 포천, 양평, 양주 등이며 경상도 선산에 '미노리'라고 있고 함경도 지방에 '미나리'가 있다.[3)]

흔히 '민아리'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는 '미나리'를 좀 힘있게 부르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니 메나리가 지방 방언에 따라 메나리 → 미나리 → 민아리 등으로 변한 것이다.

여기에서 산유화가의 전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산유화가 → 산유해 → 산아지 → 어산영 → 화전놀이

▶ 메나리 → 미나리 → 민아리

이렇게 본다면 백제의 메나리는 가히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고 하겠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음조나 가사의 내용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한다.

3. 백제의 멸망

백제는 시조가 온조왕이라고 하고 온조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8대 고이왕 때 나라다운 나라로 체제가 확립되었고 근초고왕 때 가장 흥했으며 그의 아들 근구수왕은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가 고국원왕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그 후 고구려의 광개토태왕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말았고 개로왕은 고구려의 침공으로 사로잡혀 죽기도 하였다.

이에 개로왕의 아들 문주왕은 남하하여 웅진(公州)으로 도읍을 옮겨 4대 66년간 있었으며 성왕 때 다시 부여(泗沘城)로 천도 하였다.

부여로 도읍을 옮긴 백제는 중흥을 위해 노력 하였으나 무왕과 의자왕의 사치가 국고의 낭비로 국력이 급속히 쇠퇴하여 나당연합군에 의해 31대 678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28 백제본기(百濟本紀) 제6 의자왕(義慈王) 조에 보면

「소정방은 왕과 태자 효 왕자 태 융 연과 대신 장수 벼슬아치 88인과 백성 12807명을 당나라 서울로 보냈다.」(定方以王及太子孝王子泰隆演及大臣將士八十八人百姓一萬二千八百七人送京師)[4]

라고 하였으니, 패망한 나라의 참상과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

3) 이소라 韓國의 農謠 第4輯 玄岩社 1990

4) 李載浩. 三國史記. 養賢閣. 1983

4. 부여의 메나리(山有花歌)

부여군 양화면 금강 가에는 유왕산(留王山, 遊王山)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매년 음력 8월 17일에 유왕산놀이라는 것이 행하여진다. 특히 이 놀이는 인근의 여인들이 모여서 즐기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이 놀이의 배경이 됐다고 한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게 패하고 망하게 되자 당나라군에 의해 왕과 태자 왕자 대신 등과 백성들 수만 명이 끌려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으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때 당나라군은 백제 사람들을 배에 태워 금강을 통해 끌고 가는데, 남아있던 백성들이 왕과 왕자 그리고 헤어지는 부모형제를 보려고 유왕산에 올라 배가 멀리 금강에서 사라질 때까지 통곡하며 전송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해마다 백성들이 유왕산에 모여 끌려간 사람들을 추모하게 된 것이 바로 유왕산놀이라고 한다.

당시에 남정네는 끌려갔지만 나이 들어 쓸모없는 여인들은 놓아두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모여 끌려간 남편이나 친인척을 추모한 것이 유래가 되어 여인들만이 모여서 하는 놀이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원래 유왕산놀이에는 남자는 참가할 수 없다.

유왕산놀이에는 맛난 음식을 즐기고 춤과 노래도 불려 졌는데, 노래로는 산유화가(山有花歌)가 있다.

산유화가는 우리말로는 메나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메나리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 원조는 부여라고 본다.

망국의 서러움을 간직한 채 끌려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통곡으로 부른 노래가 메나리인 것이다. 슬픈 망국의 노래 메나리는 그 뒤로 전국으로 퍼져 나갔을 것이다.

여기에서 〈부여군지(扶餘郡誌)〉 속의 산유화가를 살펴보겠다.

〈부여군지(扶餘郡誌)〉 부여의 민속 문화 제4장 부여의 민속예술 속의 제2절 무형문화재에 보면, 산유화가(山有花歌)가 나온다. 그 글을 인용하면,

"우리나라 민요 중에 산유화(山有花)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적지를 않다. 충청도 지방뿐만 아니라 경상도에서도 '산유화가'는 채록되어 왔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채록되고 있는 노래인데도 그 가사를 보면 모두가 백제의 고도(古都) 부여의 지명과 또 백제의 고사들이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가 이제

는 희미한 기억을 살려 간혹 촌로들 입에서 토막토막 전하고 있었을 뿐이다."[5]

라고 하였으니 부여의 메나리가 전국으로 퍼져 나갔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부여군지〉를 살펴보면,

"그런데 부여지방 사람들은 '산유화가'가 먼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백제 때부터 불러져 오는 유서 깊은 것이라고 믿어온다.... (중략)... 앞에서도 잠시 거론된바 있지만 '산유화가'가 백제의 고도 부여지방의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바로 '산유화가'의 가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궁야평(일명 궁뜰, 부여군 세도면 앞뜰).용머리. 구룡포. 입포. 남당산. 사비강. 왕당. 취영봉. 반월성. 부소산성. 등 모두가 지금도 이 지방에서 쓰이고 있는 지명들이다. 전체 소리의 줄기는 나라를 잃은 백제유민의 의지와 애환이 깃든 것이다."[6]

라고 하였으니, 진작부터 부여사람들은 산유화가가 나라 잃은 백제유민들의 애환이 깃든 노래임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조 숙종 때 사람 포암(蒲菴) 이사명(李師命)의 연천집(淵泉集)에 보면 산유화가를, "백제시대의 가요이다. 지금 봄여름에 농부나 나물 캐는 여인네들이 읊조리지 않는 이가 없다. 서로 화답하니 다 남녀의 상열지사(相悅之辭)이다. 음조는 처량하며 슬프고 격열하며 절실한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다." [百濟時歌謠也至今春夏之際農夫採女無不記吟相和皆是男女相悅之辭而音調悽惋激切聞者莫不流涕...] [7] 라고 하여 애절하고 처량한 노래로 묘사하고 있다.

부여 산유화가의 가사 몇 가지를 살펴보면,

(1) 입포의 남당산은 어찌 그리 유정 튼 고
매년 팔월 십육일은 왼 아낙네 다 모인다 무슨 모이가 있다더냐

(2) 용머리 생각하며 구룡포에 버렸으니
슬프구나 어화 벗님 고국충성 못다헌데

(3) 반월성 돌아가면 에이야 에헤
만경창파가 이 아니냐 에이야 에헤

---

5) 扶餘郡誌. 제6편 부여의 민속문화.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6) 扶餘郡誌. 제6편 부여의 민속문화.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7) 扶餘郡誌. 제6편 부여의 민속문화.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4) 만경창파 넓은 바다 둥실 둥실 떳는 배는 친화하는 배들인가
고기 잡는 배들인가 고군도를 바라보니 친화선이 분명쿠나

(5) 산유화야 산유화야 오초동남 가는 배는 순풍에 돛을 달고
북을 둥둥 울리면서 어기야 저어가니 원포귀범이 아니냐

(6) 산유화야 산유화야 사비강 맑은 물에 고기 낚는 어옹들아
왼갖 고기 다 낚어도 경칠량은 낚지 마소

(7) 산유화야 산유화야 왕당의 벅궁새는 어이 그리 지저귀냐
겉잎은 자자지고 속닢 나라고 지저진다.

(8) 산유화야 산유화야 농사일이 바쁘지만
부모형제 구제하세 어화 어화 상사디여

(9) 어화 어화 상사디여 산유화야 산유화야
네꽃 피어 자랑 마라 구십 소광 잠깐 간다 [8)]8)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 천년이 넘는 세월과 왕조가 몇 번 바뀌었는데, 이 가사에서 백제멸망에 관한 자료를 얻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산유화가가 농요로 변한 지금 산유화가의 산(山)과 농사짓는 들(野)이 변질된 상황에서 본래의 처절하고 슬프고 애절한 당시의 가사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망국요가 전국으로 퍼졌을 테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슬픈 망국요(亡國謠)는 농요로 승화되어 민중에 전승된 것이 현제의 상황일 것이다.

5. 고려의 멸망

고려는 왕건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다. 처음 태봉국의 왕인 궁예의 부하로 활약하다가 궁예를 몰아내고 고구려의 맥을 잇는다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백관회의 끝에 고려에 항복하고 이듬해 후백제도 항복하니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가 된 것이다.

---

8) 扶餘郡誌. 제6편 부여의 민속문화.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성종 때 관제와 여러 가지 제도가 정비되었고 문종 때 국운이 융성하고 문물이 발달하였으나 이때부터 너무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이에 무신(武臣)들의 불만이 쌓여 갔다.

의종 때 무신의 난이 일어나 원나라에 복속이 될 때까지 무신정권이 고려를 장악하였다.

원나라의 공격을 받자 강화도로 천도하여 싸웠으나 강화(講和)하게 되었고, 강화를 반대하던 김통정 등이 진도와 제주도로 옮겨가며 저항하기도 하였다.

그 뒤 원나라도 국력이 쇠퇴하자 명나라가 건국되었고 이에 고무된 이성계 일파에게 나라를 넘기니 고려는 34대 475년 만에 망하게 된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은 이성계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추방되어 원주를 거쳐 간성으로 갔다가 삼척으로 옮겨져 죽임을 당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왕이라는 존재가 나라의 흥망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성계가 왕이라 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니 조선국이 건국된 것이며, 아직도 고려의 왕이 살아있으니 언제라도 고려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서 그 불씨를 아예 없애는 것이 후환이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서기 1392년 7월 12일 왕대비가 교지를 내려 공양왕을 폐위시켜 공양군(恭讓君)으로 강등시켜 곧 바로 원주(原州)로 유배시킨다. 그리고 닷새 뒤인 7월 17일에 개성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면서 고려는 망하고 만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 권제5(卷第五) 3년 4월 기록을 보면 공양왕을 죽이기 위해 4월 14일에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정남진(鄭南晉)과 형조의랑(刑曹議郞) 함부림(咸傅霖) 등을 삼척으로 보냈는데, 이미 4월 15일에 윤방경 등이 강화도에 있던 왕씨들을 모두 강화도바다에 빠뜨려 죽였다. 3일 만에 삼척에 도착한 정남진 등은 4월 17일 공양왕 앞에서 이성계의 교지를 읽어 내려가니,

"신민이 추대하여 나를 왕으로 삼았으니 실로 하늘의 운수라, 군(君,恭讓君)을 관동에 가서 있게 하고 그 나머지 동성(同姓)들도 각기 편리한 곳에 가서 생업을 보안(保安)케 하였는데, 지금 동래현령(東萊縣令) 김가행(金可行)과 염장관(鹽場官) 박중질(朴仲質) 등이 반역을 도모코자 하여 군과 친속의 명운(命運)을 맹인(盲人) 이흥

무(李興茂)에게 점을 쳤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죄(伏罪)하였는데 군은 비록 알지 못하였지만 일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러 대간(臺諫)과 법관(法官)이 장소(章疏)에 연명(連名)하여 청하기를 12번이나 하였으되 여러 날 동안 굳이 다투고 대소신료들이 또 글을 올려 간(諫)하므로 내가 마지못하여 억지로 그 청을 따르게 되니 군은 이 사실을 아시오"[臣民推戴以予爲君實惟天數令君就居關東其餘同姓各歸便處保安生業今東萊縣令金可行鹽場官朴仲質等欲圖不軌以君及親屬之命卜於盲人李興茂事覺伏罪君雖不知事至如此臺諫法官連章上請至于十二次累日固爭大小臣僚又上書爭之予不獲已勉從其請君其知悉] 9)

라고 하면서 말도 아니 되는 이유로 공양왕과 두 아들을 교살하니 처절하고 원한에 찬 고려의 멸망이었다.

그리고도 후환이 두려웠는지, 3일 뒤인 4월 20일에는 손홍종 등이 거제도에 있던 왕씨 일족을 모두 바다에 빠뜨려 죽였고 6일 뒤인 4월 26일에는 전국에 영을 내려 왕씨의 성을 쓰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였으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것이며 지구상에서 이 보다 더 악랄한 왕조 침탈이 있었을까 한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그러하나 실지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무덤이 있는 왕은 공양왕이 유일하니,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에 공양왕 능이 있고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또한 공양왕 능이 있다. 공식 기록상 공양왕이 죽은 강원도 삼척에서는 공양왕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복위운동이 일어나 치열한 접전 뒤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머리를 잘라 이성계에게 보냈기에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에 있는 무덤은 공양왕의 머리 무덤이라고 한다. 10)

6. 삼척의 메나리

백제가 멸망하고 망국의 서러움을 노래한 망국의 노래 메나리가 전국으로 퍼져 나갔는데, 고려의 마지막 멸망의 땅 삼척에도 메나리는 전해 졌으니, 바로 삼척메나리 이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죽자 고려는 멸망하였고, 그 난리를 겪은 당시의 백성들이 고려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삼척 사람들은 메나리 가락에

9) 朝鮮王朝實錄. 太祖康獻大王實錄 卷第五 3년 4월
10) 김강산. 烏金簪神考. 제2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수상집. 한국문화원연합회. 2008

망국의 아픔과 서러움을 실어 노래하였던 것이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부여나 삼척의 메나리는 농요로 변하고 본래의 가사를 찾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차피 농경사회에서 메나리가 민중 속에 녹아든 농요로 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삼척의 메나리 전승지역은 공교롭게도 공양왕이 죽었다고 하며 공양왕의 무덤이 있는 지역인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지역이다.

삼척의 메나리 가사를 보면,

(1) 부용봉에 꽃을 꺾어 들고 보니 상사화요
　　만수산에 자란 약초 먹고 보니 불로초라

(2) 동해 동천 돋은 해가 일락서산 넘어간다
　　아침 이슬 만난 님이 저녁 난두에 이별일세

(3) 오늘 해가 거진 갔네 음지 양지가 슬프다
　　방실방실 웃는 님을 못다 보고서 해가 지오

(4) 초승달만 반달이냐 그믐달도 반달이지
　　삼십명 일꾼들아 반달봉으로 후려메세

(5) 절에 올라 목단화는 법당 앞이 붉아오오
　　씨고 낮은 패래이꽃은 시내 갱변이 붉아오오

(6) 닭아 닭아 우지마라 금싸래기로 뫼를 주마
　　개야 개야 짖지마라 받은 밥상 니를 주마

(7) 개가 되거든 청삽사리가 되어 가고
　　닭이 되거든 행상 끝에 요령닭이나 되어다고

(8) 개가 짖네 개가 짖네 천태기슭 개가 짖소
　　그기 누구 개라드냐 마구할미 청삽사리

(9) 사해 창생 농부들아 일생신고 서러마오
음지 양지 슬퍼온데 우리님은 어데갔나[11)]

등으로 채록을 하였다. 여기에서 고려의 멸망에 대한 가사를 밝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백 년이 지나도 그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숨어 있는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서슬이 퍼런 시절에 잘못하면 곧 죽음인데, 대놓고 말할 수 없었고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더 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채록된 가사를 재해석 하는 수밖에 없다.

(1)번 가사에 '만수산'이 나오는데, 삼척지방에는 없는 산 이름이다. 이방원의 시조 하여가(何如歌)에 나오는 산 이름으로 개성 근방에 있는 산 이름이다. 이것은 고려의 멸망을 눈으로 본 삼척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려의 향수인 것이다.

(2)번 가사는 고려의 멸망과 공양왕의 죽음을 은유한 대목이고, (3)번 가사의 '오늘 해가 거진 갔네 음지양지가 슬프다,'도 해가 졌는데 음지 양지가 왜 슬픈가? 이것도 고려 멸망의 슬픔을 말하는 은유의 표현이다.

(4)번 가사에 '초승달만 반달이냐 그믐달도 반달이지'는 초승달은 이성계를 뜻하고 그믐달은 공양왕을 뜻한다. 초승달은 새로 뜨는 조선을 뜻하고 그믐달은 이제 지는 고려를 뜻하는 것이다.

(5)번 가사의 '절에 올라 목단화는 법당 앞이 붉아오오'는 공양왕의 죽음과 불교를 뜻하고 '씨고 낮을 패래이꽂은 시내 갱변이 붉아오오'는 이름없이 죽어간 많은 사람을 뜻한다고 본다. 패랭이는 꽃을 말하지만 사실은 머리에 쓰는 모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6)번 가사를 보면, '닭아 닭아 우지마라 금싸래기로 뫼를 주마'라고 하였는데, 이는 공양왕을 은유한 것이며 먹지도 못하는 금싸라기를 모이로 준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을 은유한 것이다. '개야 개야 짖지마라 받은 밥상 니를 주마'의 개는 이성계를 은유한 것이다. 받은 밥상을 준다는 것은 왕권(王權)을 준다는 것이다.

(7)번 가사의 '요령닭'은 상여(喪輿) 끝에 있는 나무로 만든 장식 닭이니 이미 죽은 공양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8)번 가사의 개는 이성계를 뜻하고 '마구할미 청삽사리'는 적을 이롭게 하는 존재이다.

---

11) 필자채록.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李鍾聲(작고,戊申生:106세) 등

(9)번 가사의 '사해창생 농부들아 일생신고 서러마소'는 고려가 망하고 만 백성이 서러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음지 양지 슬퍼온데 우리 님은 어디 갔나'는 온 세상이 슬퍼하는데 우리 님 곧 왕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삼척의 메나리는 고려의 망국요(亡國謠)라 할 수 있다.

7. 메나리와 아라리의 동질성

우리나라의 여러 민요들은 메나리토리 영향권에 있고 특히 강원도의 민요는 거의가 메나리토리이고 그가운데 정선아리랑이나 강원도아리랑 등은 메나리토리라고 한다.

그러니 아리랑은 그 근원이 메나리라는 것이고 메나리가 변해 여러 가지 민요가 되었다는 것이다.

〈강원민속학〉 제4집 속에 이보형씨의 "강원도 민요의 특성과 개발전망"이라는 글에 보면,

"강원도 민요의 선율은 메나리토리가 주가 된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의 기층음악 언어는 메나리토리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선율의 음악을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이 선율의 발전은 정선 아리랑에서 심화된 것을 볼 수 있고, 호적 퉁소가락에 응용되는 니나리가락(메나리가락)으로 기악화 되었으며, 범패에 얹어져 상당히 고도의 음악성을 갖는 음악으로 발전된 전례가 있다. 이러한 전례를 물려받은 만큼 이것들을 잘 채득하여 향토음악 창조에 좋은 길잡이로 삼아야 하겠고 위대한 향토음악 어법의 예술이 나와야할 것이다."[12]

라고 하여, 아리랑의 원초적 고전이라 할 정선 아리랑도 '메나리토리'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강원도에서 발간한 〈강원의 전통민속예술〉에 보면, 이보형씨 글에

"강원도 민요의 선율은 이른바 메나리토리(山有花調)로 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함경도 및 경상도와 같은 특징으로 한국동부민속음악 토리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13]

라고 하면서 강원도 민요는 메나리토리가 대부분이라 하면서 결국 모든 민요는 그 근원이 메나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12) 이보형. 江原民俗學 第4輯. 江原道 民謠의 特性과 開發展望. 1986
13) 이보형.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강원의 전래민요. 강원도. 1994

8. 아라리의 형성

아리랑의 시원으로 알려진 정선 아라리는 대체로 여말선초(麗末鮮初)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강원도 아리랑〉을 보면 박민일씨는 "아리랑의 남상(濫觴)"이란 제하의 글에서,

"아리랑의 남상(濫觴)은 고려말 전오륜(全五倫) 등 '정선칠현'의 한시(아리랑)에서 비롯된 '정선아라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에 회자되는 밀양.진도아리랑을 비롯한 전국 각 고장의 아리랑들 거의가 정선아리랑의 가사를 적지 아니 수렴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은 가사만도 600여 수에 달한다. 타 지역의 아리랑들이 도저히 따라 올 수 없는 압도적인 가사량이다. 전국적인 광역분포와 수용도를 살펴보아도 정선아리랑이 그 남상임을 인정케 한다...(중략) 그러므로 정선아리랑이 아리랑의 시원임을 긍정케 한다."[14]

라고 하면서, 아라리 곧 정선아라리가 아리랑의 시원이라고 보고 있다.

아라리는 아리랑의 시원이라고 하며 여말선초(麗末鮮初)에 고려가 멸망하면서 망국유신(亡國遺臣)들이 지은 한시가 그 시초라고 보는 견해가 강원도에 두루 퍼져있다.

〈강원도 아리랑〉을 보면,

"고려가 망하자 정선칠현(旌善七賢 : 全五倫, 金中漢, 高天祐, 李遂生, 申晏, 邊貴壽, 金瑋)으로 일컬어지는 전오륜 등 7인이 송도 두문동에 은거하다가 정선 서운산(瑞雲山) 거칠현동(居七賢洞)으로 내려와 몸을 숨기고 조석으로 송도를 향해 한시(漢詩)를 지어 부르면서 고려에의 충절과 망국한을 읊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노래화된 이들 한시를 아리랑의 시원으로 보고 있다. 전오륜은 정선전씨(旌善全氏)의 중시조로서 전법판서(典法判書) 등을 역임한 역사적인 인물이며, 이들에 얽힌 이야기는 아리랑 전설, 지명전설로서 오늘에 전한다. 고려사(절요), 정선군지, 현지조사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15]

라고 하면서, 정선이나 강원도 전역에 두루 퍼져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고 결론적으로 아리랑의 시원은 아라리이고 그 아라리는 고려의 망국과 함께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

14) 朴敏一. 江原道 아리랑. 春川文化院. 1993
15) 朴敏一. 江原道 아리랑. 春川文化院. 1993

여기에서 필자는 강원도 정선 삼척 지방에서 생성된 '아라리'가 모태가 되어 기타 아리랑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9. 삼척메나리에서 파생된 아라리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아라리는 메나리토리라고 하였다. 그러니 아라리의 동기는 메나리이고 아라리는 메나리에서 파생되었다고 본다.

정선아라리가 고려의 망국유신(亡國遺臣)들이 시초라고 하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죽은 곳이 삼척이니 공양왕이 죽고 그의 무덤이 있는 궁촌에서 전해지는 삼척메나리야말로 정선아라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특히 삼척메나리의 '만수산에 자란 약초 먹고 보니 불로초라'의 '만수산'과 정선아라리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 든다'의 '만수산'은 삼척과 정선에 없는 하여가(何如歌)에 나오는 고려의 서울인 송도의 만수산이다.

백제의 망국요(亡國謠)인 메나리(산유화가)가 전국으로 퍼져 갔고 삼척으로 퍼져 온 메나리는 삼척지방 메나리가 됐는데, 마침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삼척 땅에서 비극적 죽음을 당하며 고려가 멸망하자 삼척 땅 근방으로 모여들었던 망국유신(亡國遺臣)들은 구심점을 잃고 깊은 산중으로 흩어져서 메나리가락의 음조를 기본으로 슬픔을 달래면서 더욱 애절한 노래로 변한 것이 아라리라고 본다.

10. 아라리의 어원

가.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의 가사는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시대의 시대상을 노래한 가사들로 되어 있기에 수백 수천 편의 가사가 있고 그 가사를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후렴구(후렴가사)이다. 대개 후렴구는 전(前) 후렴구와 후(後) 후렴구로 되어있다.

여기에서는 전(前) 후렴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보통 아리랑 계통의 노래 말에는 공통된 구조의 후렴구가 있다. 특히 전(前) 후렴구에는 '아라리가 났네'라는 가사가 있다.

이것은 뭔가가 일어났다는 암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아라리'가 났다는 것이다. 그 '아라리'가 뭔지는 모르나 여하튼 '아라리'라고 하는 것이 났다는 것이다. 그것이 난리든 불이든 났다는 것이다.

또한 '아라리'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는 후렴 가사인 '아라리요'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아라리'라고 하는 말의 뜻을 단정 인정하는 '요'라는 조사가 있기에 '아라리가 났네'와 함께 뭔지는 모르나 '아라리'의 의미를 단정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 가지 아리랑 가사의 전(前) 후렴구를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 진다.

▶ 진도 아리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 밀양 아리랑

아리 당닥꿍 쓰리 당닥꿍 아라리가 났네

▶ 아리랑 타령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요[16]

▶ 엮음 아라리(춘성지방)

아리 아리룽 아리 아리룽 아라리가 났구나

▶ 아리랑(3)〈삼척지방〉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 횡성얼어리

어리 어리랑 스리 스리랑 어러리가 났네

▶ 인제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 太平 아리랑

아리 아리랑 시리 시리랑 아라리가 났네

▶ 西道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 서울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16) 新舊노래가락. 世昌書館. 1952

▶ 긴 아리랑 타령(1)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 청원 아리랑

아리랑 아리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 남원 아리랑

아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 구례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 장수 아리랑

아리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흥흥흥 아라리가 났네

▶ 고흥 아리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끙끙끙 아라리가 났네

▶ 신안 아리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 남도 아리랑

아리 아리랑 어리 어리랑 아라리가 났네

▶ 월성 아리랑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낫네

▶ 예천 아리랑

아리 아리 아리 아라리가 났네

▶ 안동 아리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 남해 아리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 동래 아리랑

아리 아리랑 시리 시리랑 아라리가 났네

▶ 아리랑(춘성지방)

아리 아리 아롱 쓰리 쓰리롱 아라리가 났어요

▶ 정선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강원도 아리랑(1)

아렁 아렁 아라리요

▶ 강원도 아리랑(3)

아리 아리 쓰리 쓰리 아라리요

▶ 강원도 아리랑(亞里郞) 타령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요

▶ 춘천 아리랑(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원주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강릉 아라리(1)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요

▶ 자진 아라리(모내기 謠)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라리요

▶ 학산 아라리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라리요

▶ 양양 아리랑

아리 아리야 쓰리 쓰리야 아라리오

▶ 海州 아리랑

아리 아리 얼수 아라리요

▶ 滿州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淸津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서산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공주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예산 아리랑 타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라성

아라리야 아라리요

▶ 창원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평창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야

▶ 安州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요

▶ 춘천 아리랑(3)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 긴 아리랑 타령(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려[17]

위에서 살펴 본데로 아리랑의 전(前) 후렴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아라리가 났네'이고 둘째는 '아라리요'이다. 둘 다 '아라리'가 주어이다. '아라리가 났네'는 말 그대로 '아라리'가 났다는 것이고 '아라리요'는 '아라리'를 인정하는 말이다. 예컨대 '난리요' '왕이요' '도둑이요' '꽃이요' '물이요' '불이요'와 같은 것이다. 위의 여러 가지 아리랑의 예에서 보듯이 평창 아리랑의 경우에는 '아라리야'라고 하였고 안주 아리랑에서는 '아리랑이요'라고 하였으며 춘천 아리랑(3)에서는 '아라리로구나'라고 하였고 긴 아리랑 타령에서는 '아라리로구려'로 '아라리'라는 주어를 인정하는 말로 되어 있다.

아리랑의 가사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수십 수백의 가사가 있지만 후렴구는 대개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후렴구 속의 '아라리'이다. '아라리'가 어떠한 말인지를 밝히면 '아라리'의 어원 문제는 풀리지 않을까 한다.

---

17) 金練甲. 아리랑. 現代文藝社. 1986

나. 아, 난리가 났네

사람이 죽지만 안는다면 어떻게 하든 살아갈 수 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죽지만 않는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흉년이 아니라 난리인 것이다.

난리가 나면 십중팔구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풍경이라던가 즐거운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난리(전쟁)의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단군이래로 900번이 넘는 난리를 겪은 민족이 우리라 하니 우리겨레에게 난리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자연스럽게 우리겨레의 정서에는 난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삶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본다.

당연히 민요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난리가 민요의 근간을 이루는 동기가 아닌가 한다.

아라리도 그 원초적 본질에는 난리가 핵심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아리랑의 어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리'와 '랑'으로 분리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리설'이고 '아랑설'이며 '아린설'이 있는가 하면 '알영설'이 있고 '아리고 쓰리다'에서 찾으려 하고 불교의 영향인 '아리람설'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리랑의 본디 이름인 '아라리'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면서 생각을 바꾸어 '아'와 '라리'로 분리해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같은 뜻으로 메나리의 경우 '메'와 '나리'로 분리해서 이해하면 되듯이 아라리도 '아'와 '라리'로 분리해서 이해해 보자는 것이다.

'아'는 인간의 원초적 배냇소리로 규정하고 싶다. 어린아이가 처음 하는 소리이고 인간이 언어이전에 내 지르는 소리가 '아'이다. 감탄사일수도 있고 발성사(發聲辭)일수도 있다.

그렇다면 '라리'는 무엇인가? '라리'는 '난리'에서 온 말이라고 본다. '난리'에서 '라리'로 변하며 나중에 '노래'의 의미로 변해간다고 본다.

아라리에서 '아라리가 났네'라는 후렴구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났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난리'가 '나리'로 '라리'로 변하면서도 '났네'라는 동기는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다.

백제처럼 극적으로 멸망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백제는 멸망할 때 왕을 비롯하여 태자 왕자들 대신과 벼슬아치 그리고 만명이 넘는 백성들이 배로 끌려가는 모습을 남아있는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금강가의 산에 올라 눈물로 산유화가를 부르며 전송하지 않았는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으며 그래서 '아, 난리가 났네'가 변해 '아라리가 났네'로 유전되는 것이다

난리가 났다고 보고 '어'에서 '아'로 변화하는 우리말의 체계를 알아보는데, 우리말이 한자에서 변화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가짜'니 '진짜'니 하는 것도 '假짜' '眞짜'에서 나온 것은 익히 아는 것이고, '정말'이란 말도 '正말'이란 것으로 한자어에서 반반씩 취한 것이다. 그밖에도 '니편' '내편'도 반은 한자요 '해롭다' '보쌈' 등도 반은 한자로 되어 있다.[18]

'난리'도 한자 '亂離'에서 온 말이지만 한자는 생각지 않고 그저 '난리'라고 하면 다 알아 듣는다. 그래서 그 난리를 좀 더 확대해 보고자 한다.

왕조시대의 왕은 나라 안의 모든 물적(物的) 지적(知的) 인적(人的) 자원의 주인이며 국가의 상징이었다.

왕이 항복하여 나라가 멸망하거나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일어난다면 곧 나라는 망하게 된다. 백성들이 남아있어도 나라 없는 백성이라 새로운 왕에게 의지해야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은 나라 자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왕의 명령을 어명(御命)이라 하여 귀신도 복종한다고 하였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리는 종이꽃을 어사화(御賜花)라 하여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특히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어허랑(御許郎)이라 하였는데, 홍패를 주고 여러 가지 특전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사흘 동안 유흥가에 나가 호탕하게 놀게 하는 것도 있었다. 이때 유흥가에 놀러 가거나 친척 선배 등을 뵈러 가거나 할 때 창부(唱夫)가 앞장서서 춤추며 길고 큰 소리로 「어허랑~ 어허랑~」하며 자꾸 외쳤다고 한다[19].

한자로 된 글 내용을 보면, 왕이 윤허하거나 허락한 사람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환(御患)이라는 말이 있는데, 왕이 아프거나 옥체가 편치 않을 때 쓰는 말이다.

---

18) 이기문.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0

19) 柳洪烈. 韓國史大事典. 教育出版社. 1979

어환(御患)은 글자 그대로 왕의 환우(患憂)이거나 환란(患亂)을 뜻하는 것이다.

만약 왕에게 불의의 사고나 국가 존망의 큰 사단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곧 난리일 것이다. 왕의 존재가 국가 자체이던 시절에 난리가 난다면 그것은 어난(御亂)이고 어난리(御亂離)일 것이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 신하들과 함께 당나라에 잡혀 가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난리가 나도 그런 어난리(御亂離)가 없을 것이다.

우리말은 '어'에서 '아'로 변천되는 예가 많다. 예를 든다면, '어리어리'가 '아리아리'로 변하고 '어뿔사'가 '아뿔사'로 '어우르다'가 '아우르다'로 '어이구나'가 '아이구나'로 '어구머니'가 '아이구머니'로 '어허허'가 '아하하'로 '어와'가 '아아'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20].

'어난리'가 '아난리'로 변하고 '아난리'가 '아나리'로 변하고 '아나리'가 '아라리'로 변한다면, '아라리가 났네'의 의문점이 풀릴 것이다. '아라리가 났네'는 왕에게 난리가 났다는 뜻이다.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면 뭐가 났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아, 난리가 났네' 든 '어난리(御亂離)가 났네'든 '아라리'는 '난리'에서 그 어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 목을 넘겨 주소

아리랑의 후렴구에는 전(前) 후렴구와 후(後) 후렴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후 후렴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후 후렴구를 보면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처음 유형은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이었는데, 나중에 '날'이나 '나를'이 생략되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로 되었다고 본다.

아리랑의 가사는 수천 년이 지나면서 본래의 뜻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시대에 따라 수백 수천의 가사가 만들어 지지만 후렴구만은 별로 변하지 않고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연갑의 〈아리랑〉에서 후(後) 후렴구 부분을 발췌한 여러 아리랑의 예를 보면,

---

20) 이기문. 동아국어대사전. 동아출판사. 1990

어환(御患)은 글자 그대로 왕의 환우(患憂)이거나 환란(患亂)을 뜻하는 것이다.

만약 왕에게 불의의 사고나 국가 존망의 큰 사단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곧 난리일 것이다. 왕의 존재가 국가 자체이던 시절에 난리가 난다면 그것은 어난(御亂)이고 어난리(御亂離)일 것이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 신하들과 함께 당나라에 잡혀 가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난리가 나도 그런 어난리(御亂離)가 없을 것이다.

우리말은 '어'에서 '아'로 변천되는 예가 많다. 예를 든다면, '어리어리'가 '아리아리'로 변하고 '어뿔사'가 '아뿔사'로 '어우르다'가 '아우르다'로 '어이구나'가 '아이구나'로 '어구머니'가 '아이구머니'로 '어허허'가 '아하하'로 '어와'가 '아아'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20].

'어난리'가 '아난리'로 변하고 '아난리'가 '아나리'로 변하고 '아나리'가 '아라리'로 변한다면, '아라리가 났네'의 의문점이 풀릴 것이다. '아라리가 났네'는 왕에게 난리가 났다는 뜻이다.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면 뭐가 났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아, 난리가 났네' 든 '어난리(御亂離)가 났네'든 '아라리'는 '난리'에서 그 어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 목을 넘겨 주소

아리랑의 후렴구에는 전(前) 후렴구와 후(後) 후렴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후 후렴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후 후렴구를 보면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처음 유형은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이었는데, 나중에 '날'이나 '나를'이 생략되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로 되었다고 본다.

아리랑의 가사는 수천 년이 지나면서 본래의 뜻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시대에 따라 수백 수천의 가사가 만들어 지지만 후렴구만은 별로 변하지 않고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연갑의 〈아리랑〉에서 후(後) 후렴구 부분을 발췌한 여러 아리랑의 예를 보면,

---

20) 이기문. 동아국어대사전. 동아출판사. 1990

▶ 정선 아라리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 양양 아리랑

아라리 고개로 날 넘겨주게

▶ 삼척 아리랑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겨주게

▶ 춘천 아리랑(3)

아리 아리랑 고개 저 춤에 날 넘겨주게

▶ 安州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시오

▶ 西道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 淸津 아리랑

아리랑 고개다 날 넘겨주소

▶ 別調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 청원 아리랑

아리 아리랑 고개 자춤에 날만 넘겨주게

▶ 괴산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 밀양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 경상도 아리랑

아리랑 후즐시고 날 넘겨주소

▶ 월성 아리랑

아리랑 고개고개마 나를 넹게주소

▶ 안동 아리랑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소오

▶ 봉화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 울릉도 아리랑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 영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 하동 아리랑

아리랑 고개에만 날 넘겨다고

▶ 창원 아리랑

아리랑 고개다 날 넘기주소

▶ 동래 아리랑

아리랑 얼시구 날 넘겨주소

▶ 성진 아리랑

저 달이 지기 전 날 넘겨주

▶ 서울 아리랑

아리랑 속에서 넹겨넹겨 주소

▶ 학산 아라리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회산 아라리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자진 아라리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 가네

▶ 강릉 아라리

아라리 고개로 넘어 가네

▶ 원주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춘천 아리랑(2)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강원도 아리랑(1)

아리랑 고개로 넹겨넹겨주게

▶ 함흥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 운산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개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경기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여주 아리랑

아리아리 고개루 넘어 간다

▶ 수원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 아산 아리랑

아리랑 고개루 넘어 간다

▶ 서산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공주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남원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순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문경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영일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21]

---

21) 金練甲. 아리랑. 現代文藝社. 1986

위에서 본데로 후 후렴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물론 애초에는 한 가지 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또 지역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았나 한다.

위 후 후렴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개'가 주어이다.

고개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를 '재(嶺)'로 여기고 사람이나 우마차가 넘나드는 교통의 요충지로 생각하기에, 자비령(慈悲嶺)이 나오고 문경 새재(鳥嶺)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꼭 고개를 재(嶺)로만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고개를 다른 말로 목(項)이라 하고 실지 늦은목이(晩項) 또는 새목이(鳥項)라 하여 고개를 목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예는 가히 전국적이며 비슷한 예가 너무나 많다.

여기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꼭 고개를 교통의 요로인 재(嶺)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목으로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 목(項)은 꼭 재(嶺)로만 보지 말고 글자 그대로 사람의 목(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괴산 아리랑을 보면, 후렴구에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 주소'라고 되어 있다. 달리 생각하면 '목(고개)을 나에게 넘겨 주소'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아리랑이 '고개를' 또는 '고개로' '나를' 또는 '날' '넘겨 주소'라고 하고 있다. 기존의 고착화 된 사고를 버리고 생각해 본다면 '넘겨 주소'가 변해 '넘어 간다'로 변한 것을 이해할 것이다. 뭘 넘겨 달라는 것인가? 그것은 목(고개)을 넘겨 달라는 것이다.

백제가 멸망하면서 난리가 나 생목숨 수만 명이 끌려가는 정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생목숨을 넘겨달라고 울부짖었고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는 주문(呪文)을 외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고개(목)를 날 넘겨 주소'라고 했고 그 말이 변해서 '고개로 넘어간다'로 된 것이다.

애초에 산유화가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조각들을 살펴보면 고개는 재(嶺)가 아니라 사람의 목(項)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아라리의 기원과 어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을 정리하면,

1) 아리랑의 본디 이름은 아라리다.
2) 아라리는 백제의 멸망에서 기원한다.
3) 아리랑은 메나리토리이다. 그러므로 아리랑은 메나리에서 나왔다.
4) 백제의 망국요(亡國謠)는 메나리라는 이름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5) 그 가운데 삼척메나리는 고려의 망국요로 아라리 형성에 동기가 되었으며,
6) 아라리의 어원은 난리에서 기인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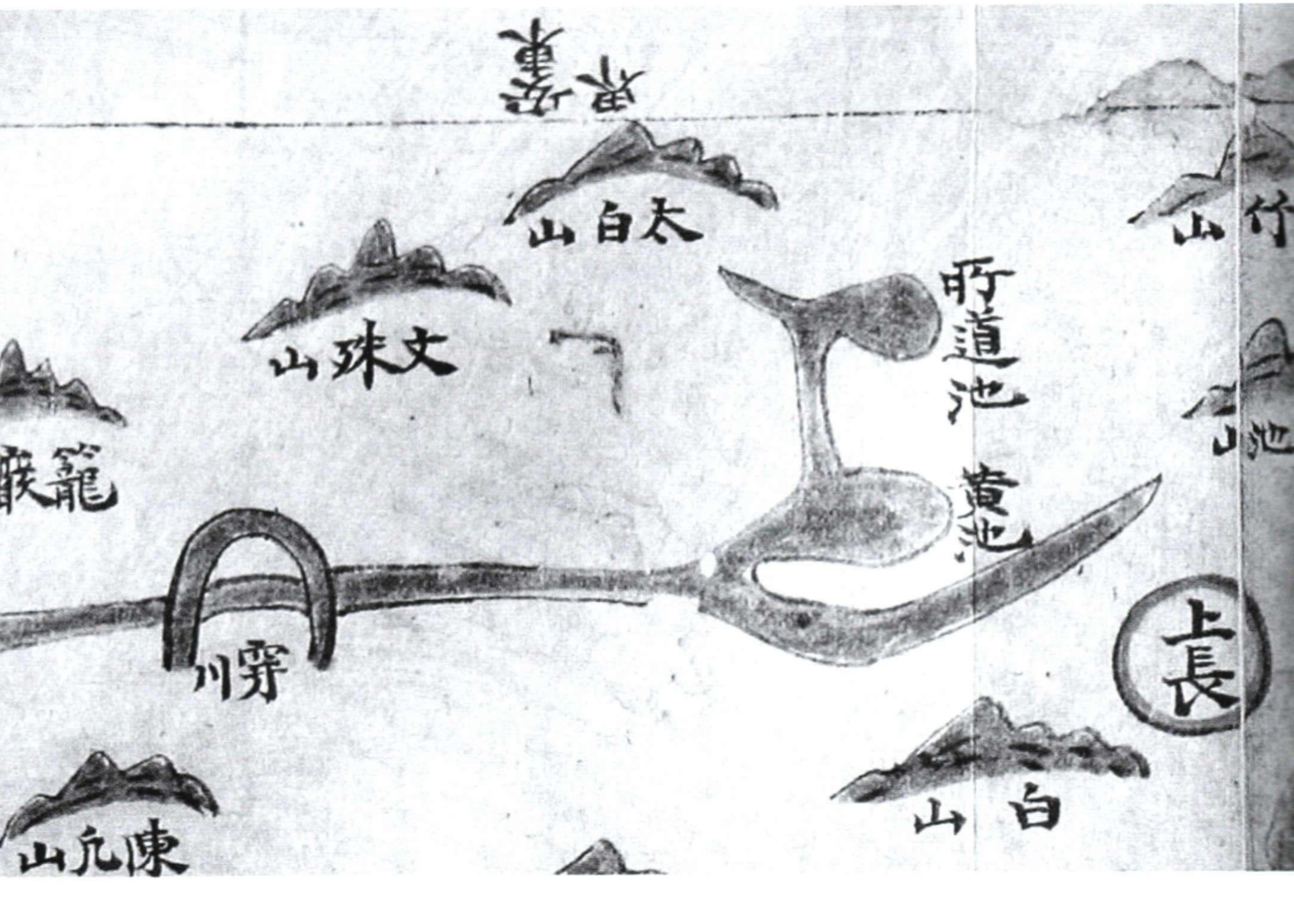
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겨레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아라리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로서 시대마다 다른 가사가 추가되고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가사는 소멸되면서 현재도 진행형인 노래이다.

아라리는 한국을 상징하며 살아 움직이는 노래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노래이면서도 지금까지 그 기원과 어원에 대하여 명쾌한 논지가 없으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새로운 시각으로 아라리의 기원과 어원에 대하여 연구한 바를 밝히는 것이다.

태백시 地名 중 '백석' 考

윤순석(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Ⅰ. 들어가는 말

지명地名은 우리 생활 터전이 되는 장소의 지형地形과 지물地物 등을 다른 지점과 구분하기 위한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명명命名된 특수한 언어기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문화 논단

태백시 地名 중 '백석' 考

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명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조상들이 생활 주변에서 그 지역의 지형地形, 위치位置, 토양土壤, 하천河川과의 관계, 풍토風土, 기후氣候, 산물産物, 교통관계, 또는 사고思考나 정치政治, 군사軍事 등에서 유래한 지명地名이 매우 많다.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경상도·충청도·전라도 지역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줄기와 낙동정맥으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에 있는 태백산 권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태백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형에 관한 지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태백시의 자연환경을 소개하면, 이곳은 대덕산(1,307m), 함백산(1,573m), 태백산(1,567m), 면산(1,245m), 백병산(1,259m) 등으로 넓게 둘러싸인 해발 약 650m의 산간지대에 형성된 도시이다. 이 지역은 높은 고도를 유지한 산지가 많지만 고위평탄면을 가지고 있으며 태백산맥의 분수계를 중심으로 동해 사면은 급하고 서해 사면은 완만한 이른바 경동성傾動性 지형이 형성되었다.

필자는 평소 이 지역과 관련한 유산기遊山記에 표기된 지명을 현재의 지명과 대비시켜보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지역 여러 곳에서 불리우는 '백석(白石)'이란 지명이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나 개인이 쓴 유산기에도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유산기나 지리지에서 소개한 위치가 현재의 위치와 다르거나, 지명의 의미에 대하여도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태백시에서 '백석'이란 지명이 사용되는 곳은 2곳이다. 한 곳은 2009년 철도가 지나는 곳 아래와 황지동 주택가 사이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이용하여 연못이 있는 작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백석지(白石池)'라 명명하였다. 또 한 곳은 허목의 『척주지陟州誌』에 느릎령 서남쪽 5리에 있다고 소개한 '백석평白石坪'이다. 이곳에 대하여 1664년에 황지를 둘러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윤선거尹宣擧의 『파동기행巴東紀行』에도 '백석白石'을 지명유래와 함께 소개하였다.

지명에는 자연지명·산업지명 등 그 유래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 중 산업 지명이라는 것은 농업지명·임업지명 등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하는데, 농업지명도 농업지명·개척지

명 · 농토지명 · 답작畓作과 전작田作지명 · 농산물지명 등으로 세분하기도 한다. 필자가 분석하려는 '백석' 이란 지명은 농업지명 중 농토지명에 해당하는 지명으로써, 농경지의 면적을 헤아리는 단위 중 '석石 · 평坪' 을 숫자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지명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척주지陟州誌』와 『파동기행巴東紀行』에 소개된 '백석' 관련지명 유래를 살펴보고, 이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규명하려한다. 이를 통해 현재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백석지白石池' 라는 명칭과 주변 도로명에 대한 재고再考와 함께, '백석白石' 이란 지명이 지닌 역사 · 문화적인 성격을 살펴보려 한다.

II. '백석' 지명 검토

'백석白石' 이란 지명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지명은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백석지白石池' 와 허목의 『척주지陟州誌』, 그리고 윤선거尹宣擧[1]의 『파동기행巴東紀行』에 소개된 '백석평百石坪[白石坪]' 이다. 이들 지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황지동 백석지白石池

2009년에 태백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태백시를 가로지르는 철도와 황지동 주택가 사이에 솟아나는 샘물을 이용하여 '백석지白石池' 라는 작은 연못을 조성하면서 주변을 정비하여 작은 공원을 만들었다.

연못의 명칭을 '백석지白石池' 라 한 이유를 연못 옆에 세운 표지석 뒤에 새겼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尹宣擧(광해2년1610-현종10년1669)는 서인의 영수였던 성혼의 외손자이고 소론의 영수 윤증의 아버지다. 金集의 門人으로 宋時烈, 尹鑴 등과는 동문수학한 동기동창이다.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정권을 이끈 지배층으로 親明排金을 주장하면서 청과 싸울 것을 주장한 주전론자이다. 1636년 12월 병자호란으로 江華에 피난한 후 성이 함락당할 때 妻는 자결하였으나 혼자 평민의 복장으로 탈출하였다.

1651년(효종2)이래 사헌부지평, 장령등이 제수되었으나, 강화도에서 대의를 지키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역학과 예론에 정통하였다.

송시열과는 평소 친했으나 송시열과 윤휴가 학문적으로 대립하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관계로 송시열이 섭하게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윤선거가 죽은 후, 아들 윤증이 스승이자 아버지의 동창인 송시열에게 망자에 대한 의례적인 덕담을 적는 묘갈을 써달라고 부탁하자 송시열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고 남들이 그러더라"라는 정도의 글을 썼기에 윤증이 좀 더 좋은 문구로 고쳐달라고 애원하니 "…바닷가에 가서 물어봐라"라고 강화에서 훼절한 일을 꼬집기까지 하여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지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문화 논단

태백시 地名 중 '백석' 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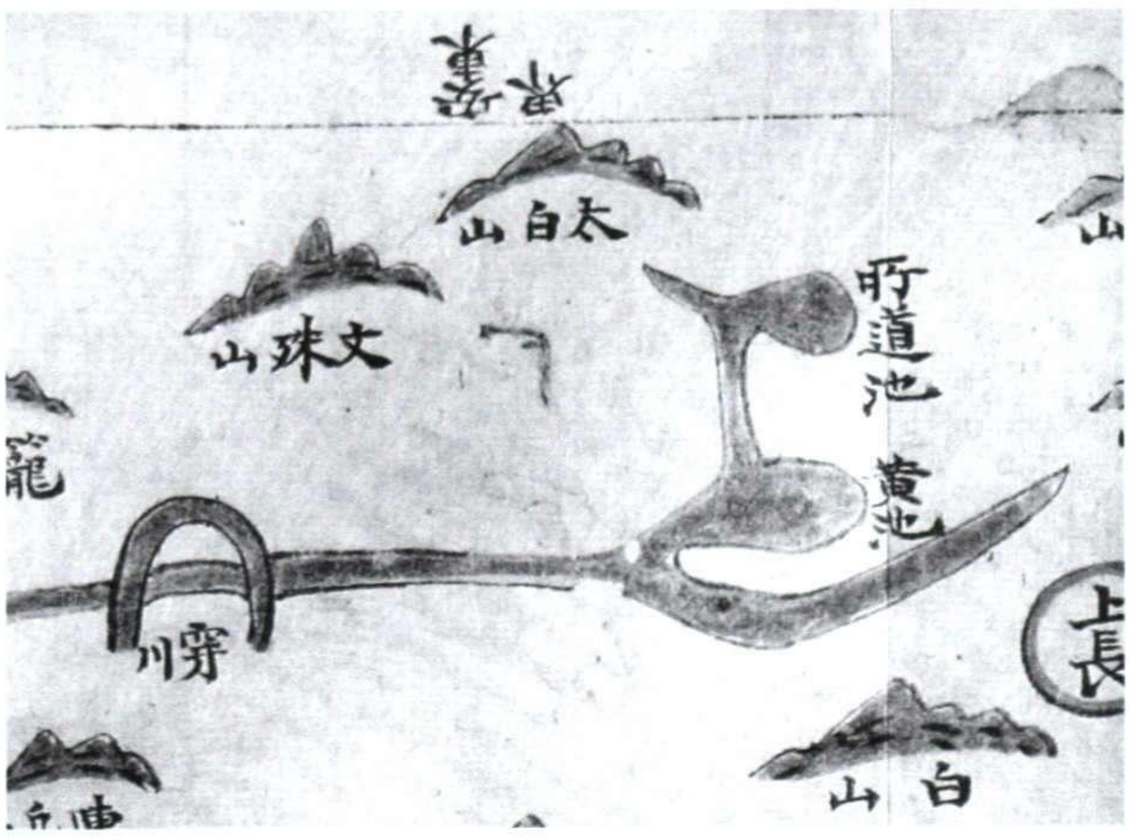
【그림 】 샘물을 활용한 백석지 전경 (2010년)

황지연못에서 흙다리골 어귀에 이르는 넓은 땅을 백석평이라 불리어 지었다. 『陟州誌』에 '황지 서남쪽 5리에 백석평[黃池西南五里白石坪]' 이 있다고 표기되어 이 연못을 '백석지(白石池)' 라고 하였다.

二千九年 十一月 三十日

그런데 복원된 '백석지白石池' 소공원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철도 가설을 위해 성토된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석아파트, 황지정보고, 4대림의 산자락이 평지로 내려앉으려는 언덕진 곳이고, 바로 위 4 대림 아파트 터의 높이를 보더라도 현재의 백석지 자리는 철도 동쪽의 평지 부분과 비슷한 높이로 낮추어 평탄작업을 거쳤다고 여겨진다. 즉, 철도부설 이전의 경사도는 황

지중학교와 KBS 태백방송국에서 고려의원 사거리로 내려오는 작은 길의 경사도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지도古地圖에서 소개된 황지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작은 연못이 이곳이라면, 낮은 지대로 흘러야 하는 황지물줄기가 지표수든 지하수든 간에 이곳 고지대로 거슬러 올라왔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다.

이에 백석평이 '황지 서남쪽 5리' 라고 밝힌 표지석 내용은 '백석지 유래'의 내용과도 맞지 않으며, 황지와 직선거리가 1㎞도 안되기 때문에 현재 복원된 백석지 부근에 연못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백석지라는 명칭의 연못은 아니다.

이와 함께 1662년 삼척부사였던 허목이 지은 『척주지陟州誌』에 실린 '백석평百石坪'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느릅령에서 서쪽으로 십리를 가면 황지가 있고 서남쪽으로 5리를 가면 백석평이다. 또 서남쪽으로 20리를 가면 천천[뚜르내 ; 공연孔淵]이다.[2)]

위의 자료를 보면 '백석평百石坪'은 '황지에서 서남쪽 5리'가 아니라 '느릅령에서 서남쪽으로 5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에 실려있는 위의 기록은, 백석평이 현재 태백시 백산 주변에 있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척주지陟州誌』에는 지명의 한자 표기가 '백석평白石坪'이 아니라 '백석평百石坪'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 백 가마를 수확할 수 있는 넓은 땅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면 '흙다리골'이라는 지명이나 '백석평'의 영역에 대한 기록을 『척주지陟州誌』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백석평이 황지에서 서남쪽으로 5리에 있다는 잘못된 해석은 도로의 이름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끼쳐 현재 황지에서 대현목욕탕 쪽으로 난 길을 엉뚱하게 '오리평길'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2. 백산 솔안마을의 백석평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서 월천 상류를 향해 물길 따라 올라오다 보면 풍곡마을에서 남쪽물과 북쪽물이 합쳐진다. 남쪽 물은 덕풍계곡과 가곡휴양림, 그리고 석포 석개재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서 내려온 것이고, 북쪽 계곡은 동활 계곡이라고 통칭하고는 있지만 계곡 상류로 좀 더 올라가면, 북쪽에서 남향하여 내려오는 신리쪽 물과 백병산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동활 계곡물

2) 許穆, 『陟州誌』. 〈…自楡峴西十里黃池 西南五里 百石坪 又西南二十里穿川…〉

이 합쳐진 것이다. 서쪽의 동활계곡으로 향해야 태백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월천하류에서 태백시까지 올라가는 계곡 명칭이 많이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예전에는 '얼음[빙氷]' 자字를 가미하여 '빙곡氷谷'이라 불리우던 마을이 음운변화로 '덕풍계곡德風溪谷'이 있는 '풍곡'이 되었고 무릉도원武陵桃源의 '도원桃源'이라고 불리우던 곳은 발음이 와전되어 현재 '동활'로 불리우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빙곡'이라 함은 '우거진 원시림 속이어서 시원하기가 얼음 같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명으로 보이며, 동활계곡은 '무릉도원처럼 풍요롭게 살지만 길이 험해 외지인 출입이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동활계곡의 횡계재를 서쪽방향으로 넘어오면 오십천 발원지인 백병산 구사리와 통한다. 또한 '횡계재'는 그 명칭만으로도 '남북선상 백두대간 분수령 경계를 동서 횡으로 관통하는 고개'임을 알 수 있다.

계속 직진하여 고비덕재를 넘으면 태백시 통리에 있는 원통골이 나오고, 원통골 입구를 빠져나오면 우보산 느릅령 산자락이 끝나는 곳으로, 이곳이 솔안 백산의 동구洞口이다.

여기서 '백산'이란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백산白山' 즉 '백白[희다]'으로 이해되는 백산이다. 백병산의 절벽이 흰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산 이름이 마을이름이 되어 백산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다. 철암출신 조기현씨의 말을 빌면 어릴 때 동네에서 백병산을 '흰백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 하나는 '백산百産'이다. 구체적으로 쌀 백가마니를 거둘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뜻으로 '백산'이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백산의 의미는 '백산栢産' 즉, 잣나무와 관련지어 만들어진 지명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1736년 능호 이인상이 태백산을 여행하고 지은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20리를 가서 작은 돌산봉우리를 지나는데 우뚝 솟은 것이 수십 장 높이이고 투구모양과 같이 생겼는데 이것을 철암이라고 한다. 또 10리를 가서 방허마을[方墟村 : 방터골]에서 잤다. 가는 동안 길 옆은 대부분 잣나무였는데 대나무처럼 쭉쭉 뻗어 있었다. 잣나무 가지는 무성한 잎으

로 푸른 모양의 덮개가 되었는데, 사이에 흐르는 계곡물을 양쪽에서 다 덮었다.[3)]

조선시대 가로수는 대부분 관청에서 지정하여 심었는데, 잣나무를 주로 심었다고 한다. 이에 백산을 한자로 '백산柏産'으로 인식한 것은 '백柏'이 잣나무를 의미하므로 잣의 생산과 관련지어 '백산柏産'이라는 지명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백산'이 지닌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이전의 기록 중 '백산'의 '백'이 숫자 '백百'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1664년에 황지를 비롯한 태백산 권역을 여행하여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긴 윤선거의 『파동기행巴東紀行』에 소개된 '백석평百石坪' 관련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파동기행 1664년 4월 14일조〉 느릅령 꼭대기에는 백석이라는 곳이 있는데 척주陟州[삼척] 옥원沃原[원덕 옥원리]의 빙곡氷谷[풍곡]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난 길로 올라오면 이곳에 도달한다. 일찍이 안숙晏叔[정양鄭瀁(1600~1668), 자를 안숙, 송강 정철의 손자][4)]과 함께 빙곡氷谷을 보기로 약속했었던 것은 백석 땅을 보려는 이유에서였다. 백석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 터가 평평하여 백석을 수확할 수 있는 논을 일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지은 이름이지만, 지금 지세를 보아하니 웅덩이 유구遺構는 있으나 관계灌溉할 물이 없다. 가물고 건조하고 물도 차서 부쳐 먹을 만한 좋은 땅이 아니다. 안숙이 잘못들은 것 같다.[5)]

이 글에서 노서 윤선거는 느릅령 꼭대기에 '백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여진다. 윤선거의 기록에 2년 앞선 1662년 삼척부사 허목이 편찬한 『척주지』에 실린 '느릅령에서 서쪽으로 십리를 가면 황지가 있고, 서남쪽으로 오리를 가면 백석평이다.'라는 기록은 백석평이 느릅령으로부

---

3) 李麟祥, 「遊太白山記」. 〈…行二十里過小石峰 孤起數十丈 如胄鍪狀者曰鐵巖 又行十里宿方墟村 路邊皆五鬣松 其直如筠 上枝葱然成蓋 夾水兩崖而立…〉

4) 안숙 정양은 송강 정철의 손자다. 원래 정철의 둘째아들은 광해군 동인득세 시대에서 겨우 살아남아 인조반정후에 강원도 강릉도호부사를 하다가 수명을 다한다. 그 첫째 아들은 기호학파로 병자호란중 강화성이 함락되면서 전사하고, 셋째 아들이 바로 안숙 정양인데 강화도 함락시에 화살을 맞고 가족들과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살아남아 태백산 주변인 영월 상동 내리와 봉화 · 춘양 등에 은거하며 태백 5현이라고 불리워지다가 50이 넘어서야 벼슬길에 들어 1664년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강원도 간성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5) 尹宣擧, 『巴東紀行』. 〈… 楡峙之上有百石地者 沃原氷谷之上游路達于玆 曾與晏叔期觀氷谷者爲觀百石地故也 百石之名爲其平原可作水田百石地 而今觀地勢則有停潴而無川源 旱則乾水則冷 非可食之良田也 晏聞似錯歟…〉

【그림 】 동활계곡과 신리계곡의 갈림길(안내도에서는 '현위치' 로 표기되었음)

터 서남쪽으로 5리에 있음을 보여준다. 허목이 적시한 곳은 현재 태백시 백산 솔안마을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태백에서는 드물게 넓은 농토가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백석평' 은 현재의 '백산' 을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해는 '백산' 을 '백산百山' 으로 여겨야함을 보여준다.

Ⅲ. '백석' 지명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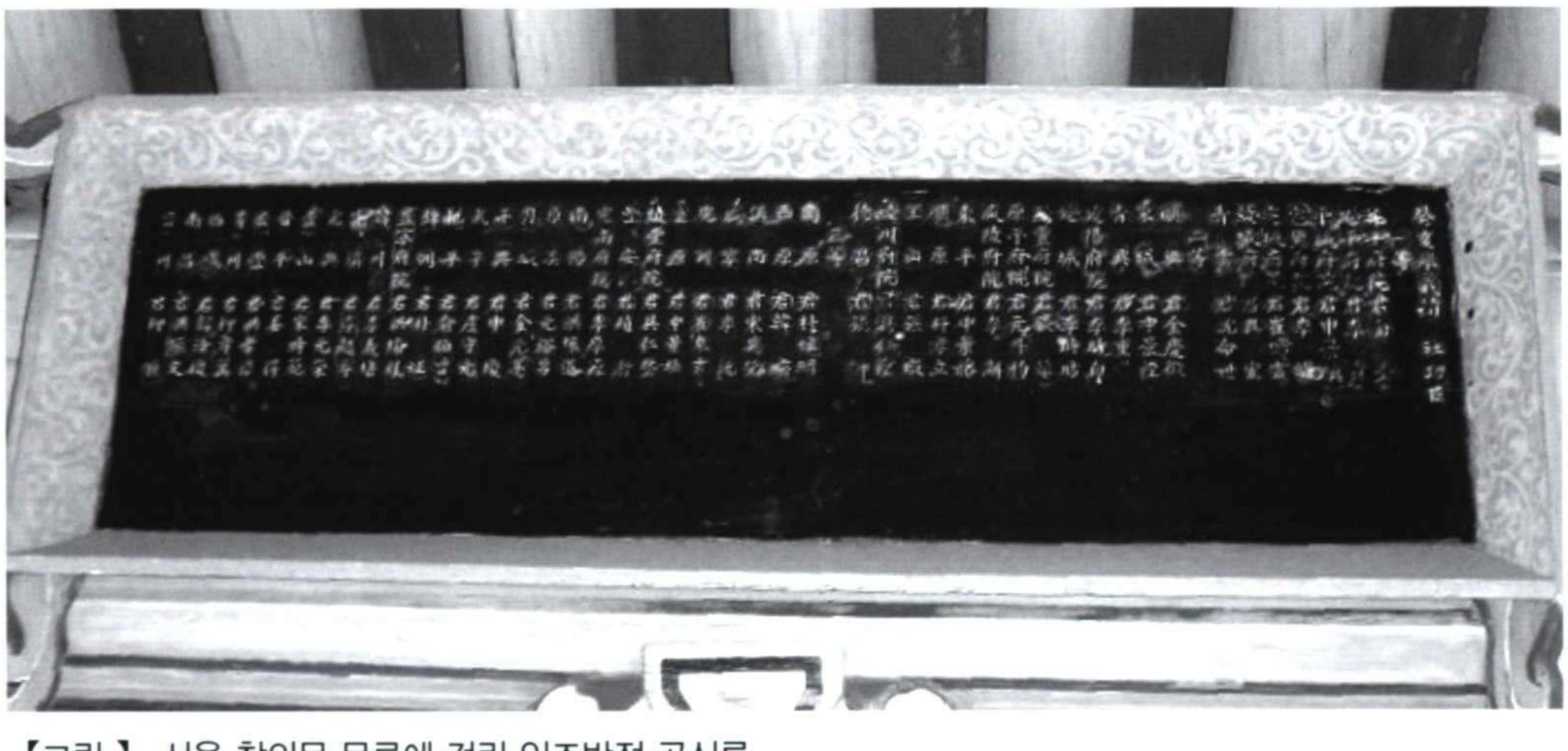
지명에 '백' 이 접두어로 쓰일 경우 위의 '백산 '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색깔로 흰 것을 의미하거나, 숫자 100, 또는 잣나무를 의미하는 등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파동기행』을 비롯한 여러 기록에서 조선시대에 각지를 여행한 선비들이 '백석' 에 많은 관심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려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백석' 이라는 지명이 지닌 의미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의미 이상

의 뭔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윤선거가 느릅령에 오기 3일전 삼척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의 상황을 기록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파동기행 1664년 4월 11일조〉 삼척부사 김건중金建中[6]이 일찍 나오고 안숙과 중연이 함께 왔다. 모여서 동헌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데 중연이 먼저 들어왔다. 나와 안숙 정양은 함께 옥원역沃原驛으로 갈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구생이 갑자기 간성에서 와서 관아에 있는 안숙에게 서부인께서 팔꿈치에 종기가 생겼다는 말을 전했다.

안숙이 이를 듣자 황망히 바로 말을 달려 북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옥원으로 가는 것은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옥원은 척주의 오지요 난리를 피하는 장소로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옥원을 거쳐 빙곡을 찾아가자면, 더욱 깊고 깊은 계곡으로 더 들어가고 농토는 비옥하니 (비상시에) 거처할만한 곳이다. 그래서 안숙은 나에게 꼭 가봐야 한다고 했었다. 깊은 뜻이 있었지만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7]



【그림 】 서울 창의문 문루에 걸린 인조반정 공신록

6) 삼척부사 건중 김진표는 강희 2년 계묘년(1663 : 현종 4) 10월에 삼척부사로 왔다가, 병오년(1666 : 현종 7) 정월에 갔다. 인조반정 일등공신 김류의 손자이다.(배재홍 譯,『국역 陟州 先生案』, 삼척문화원, 2003, 102쪽.) 아버지 김경징도 반정이등공신이지만 병자호란 당시 검찰사의 총책을 맡았으면서 아무런 대책없이 강화도를 적에게 내준 죄가 커서 죽여야 한다는 들끓는 상소 끝에 사사되었다.

7) 尹宣擧,『巴東紀行』.〈十一日 建令早來晏衍偕來 將會食于衙軒仲衍先入 余與晏叔同治沃原驛之行 丘生忽自杆來傳衙內徐婦人之病 腫生肘上 晏叔聞即慌忙即定回鞭北歸之計 沃原之往遂不諧矣 蓋沃原乃陟州之奧區也 避地之所無過於此 由沃原而尋到氷谷則又更深邃土厚可居 故晏叔必要余行者 深有意焉而遽爾分携 悵然奈何〉

위의 자료에 등장하는 삼척부사 김건중金建中, 안숙 정양, 윤선거는 이들 인물을 소개한 각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조반정을 통해 집권한 세력으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와중에 주전론을 주장하다가 조선이 청에 항복함에 따라 정치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다.

【그림 】 겸암 유운룡의 도심촌 유적비

임진왜란 이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계속됨에 따라 당시 조선의 백성들 생활은 매우 힘들어져 파탄 그 자체였으며, 지배층 또한 백성과 국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였던 매우 힘든 시기였다.

병자호란 이후 무너진 국가 위신과 중화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서인들에 의한 북벌운동이 전개되었으나.

많은 이들은 조선의 자존심 회복이나 북벌을 통한 보복 보다는 전쟁의 공포와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하여 종족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는 땅 즉, '먹고 살만한 농토가 있으면서도 전화부지처戰禍不至處(전쟁의 참화가 이르지못하는 곳)인' 깊은 산속을 찾게 되었다.

외에도 두곡杜谷 홍우정洪宇定(1593 ~1654), 동추 김람, 손우당 홍석, 정래정 등 많은 사람들이 가문의 존속을 위해 태백산 자락에 와서 살면서 난세를 피하려 하였다.

【그림 】 태백산 공군부대에서 곰넘이재 남쪽 춘양 애당리 참새골 백평교

이와 같이 많은 이들이 태백산 자락으로 모여든 것은 200여년을 큰 전쟁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당하여 이슬 맞으며 자고 비바람 속에 밥 먹으며 낮엔 숨죽이고 있다가 밤에만 이동하는 매우 힘든 고생을 하면서도 가족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에 미리 전란에 대비하여 종족을 보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두어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소개한 윤선거의 『파동기행』에 저자와 동행한 이들이 '삼척 옥원 → 빙곡 → 도원'을 경유하여 태백산으로 들어가려했던 대화 내용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들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이 지나온 길과 태백산 자락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역사상 한 번도 적의 침입이 없었던 곳이었다.

전쟁의 화가 이르지 못하는 깊은 산속이면서 백석의 쌀이 소출되는 농토가 있어 경제적인 궁핍을 면할 수 있는 곳이 당시 사람들에겐 유토피아였다. 이런 곳을 한마디로 '백석지'라고 표현

한 것이다. 즉, '백석지'를 찾은 이유는 바로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으므로, '백석평' 또는 '백석지'는 특정 장소만이 아니라 여건을 갖춘 곳이면 '백석지'라 불리울 수 있었다.[10] 따라서 이는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로 볼 수 있다. 태백산에 좀 넓다는 경작지는 다 '백석평'이기 때문이다.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의 참새골 석문동은 백두대간인 삼거리, 깃대베기봉, 부쇠봉을 경유하여 태백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전쟁의 여파가 이 돌문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시에만 돌문이 열린다는 도교적 색채를 지닌 자개문 전설이 남아있다. 양란이후에 퍼진 대중적인 불안감이 태백산 자락에 '백석평'이란 유토피아를 설정했고 나아가 종교적으로 십승지나 정감록류의 비기와 도참, 민간신앙을 확산시켰다.

'백석평'이란 지명 형성에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Ⅳ. 글을 맺으며

현재 태백시를 비롯하여 태백산 자락에는 백산, 백석평, 백석지 등 '백'자가 접두어로 쓰인 지명이 매우 많다. 이에 필자는 이와 관련한 기록이 소개된 『척주지陟州誌』와 『파동기행巴東紀行』에서 '백석' 관련 지명 유래를 살펴보고, 이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규명하였다.

이들 자료에 소개된 '백석평'은 현재 태백시 백산 솔안마을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태백에서는 드물게 넓은 농토가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백석평'은 현재의 '백산'을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해는 '백산'을 '백산百山'으로 여겨야함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태백시를 비롯한 태백산 자락에는 '백석'이라 명명된 지명이 여러 곳이다.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전쟁의 화가 이르지 못하는 깊은 산속이면서 백석의 쌀이 소출되는 농토가 있어 경제적인 궁핍을 면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고 이를 위해 보다

10) 예를 들면, 동쪽바다에서 황지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구사리 백산과, 남쪽 춘양에서 곰넘이재를 넘어 태백산 공군부대 천평으로 올라오는 곳에는 춘양 애당리 백평교가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산속 가장 깊숙한 백석평으로 가는 경유지나 길목도 백석이나 백산이란 마을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 깊숙한 산속에 자신의 종족을 확실하게 보전하면서, 최소한의 식량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상상 속의 백석지를 설정하여 동경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곳을 한마디로 '백석지'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동양의 사고가 서양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 하나는 연호 사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서기는 끝없이 이어가지만 육십갑자六十甲子는 60년을 주기로 돌고 돈다. 힘 있는 세력이 횡포를 부리거나, 난세여서 생활하기 매우 힘들어 당장은 생활이 매우 곤궁하고, 종족 보전을 걱정해야할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안전과 경제 여건이 보장되는 산 속에서 은거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다시 자신들의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많은 이들이 '백석지'를 찾아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백석지'를 찾은 이유는 종족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으므로, '백석평' 또는 '백석지'는 특정 장소만이 아니라 여건을 갖춘 곳이면 '백석지'라 불리울 수 있었다. 이에 태백산 자락에 좀 넓다는 경작지는 다 '백석평'으로 여겼기에 이는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백석지白石池'라는 명칭과 주변 도로명인 '오리평길'은 허목이 쓴 『陟州誌』 관련 기록을 잘못 해석하여 발생한 오류로 보여진다.

※ 참고문헌 – 생략

[영문 표기]

A Study on 'Baek-Seok' of place names in Taebaek-City

Yun, Sun-Seok

문화 논단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상 출(태백문화원 이사)

1. 서론

다가오는 2018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용솟음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삼수 끝에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아직도 일각에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1988서울하계올림픽이후 30년만에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아니 적어도 태백시 더 나아가 강원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2020년 동경하계올림픽에 앞서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분단하에 꽁꽁 얼어붙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라 여기고 전국 최대의 탄전지역으로서 우리 태백시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산림보호와 국민경제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했듯이 이제 두 번째로 정신적 측면에서도 국가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필자는 이를 위해서 이번 올림픽행사가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첫성화채화는 그리스 아테

네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누비다가 대한민국에서의 첫성화봉송은 백두대간 모산 영산 태백산 천제단(중요민속자료 제228호)에서 이루어지고 합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태백문화 제24집)

왜냐하면 이번 국제행사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이념을 넘어 개최되는 만큼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함과 동시에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인 세계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2.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

세계 70억 인구가 바라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의 모산인 태백산 천제단에서 한국의 첫성화봉송을 상상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세계 어느 민족이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느님'이라 불렀고, 중국에서는 '천(千) 혹은 상제(上帝)'로, 이스라엘에서는 '엘로힘 또는 여호와'로 알려져 왔습니다.

아득한 옛날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서방에서 이스라엘을, 동방에서 한국을 선민으로 여기시고 궁극적으로는 홍익인간, 제세이화, 하느님나라를 위해 통일된 세계를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꿈을 이루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보편성과 특수성 및 다양성과 통일성을 조화시켜 더불어 다함께 교제(코이노니아)하며 서로서로 사랑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강조하는 '주체'라는 말에 너무 히스테리적 반응만을 보이지 말고 점진적으로 북한이 경제부문의 투자와 개발을 위해 남한과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북한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투자, 고용,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김정은과 그의 참모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우리 또한 남한을 위해서도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는 통일을 위한 합의된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창조주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탐욕을 버리고 이웃과 하느님을 섬기려는 사랑과 열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것으로 믿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겸손한 태도로 이웃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자비로우며 토지권에 근거한 정의에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바야흐로 떠오르는 중국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이제 불과 5년도 채 남지 않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이는 강원남부 폐광지역 중심도시인 태백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30년만에 다시 맞이하는 전지구촌 최대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우리 태백시는 전국 유일한 고지대 스포츠훈련특구로서 세계 속에서 인간중심 자연중심 산소도시로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하라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우리민족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모산 태백산 천제단에서의 평창동계올림픽의 한국첫성화봉송은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통일을 위한 시발점이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태백시가 강원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평화무드로 무르익게 하여 곧바로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기약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앞두고 우리는 지난날의 과오를 철저히 회개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세계평화통일을 위해 우상숭배의 탐욕을 타파하고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이 땅위에 실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다시 전세계 열방에서 구름떼같이 인파가 몰려든 삼수강의 발원지인 삼수꼭지점에서 해마다 세계적인 로렌 커닝햄목사와 같은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한민족이 주체가 되어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계평화통일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The Taebaek
Culture Journal
태백문화
태백문화
25

문화 칼럼

봄눈 내린 검용소 숲길

지구의 온난화와 태백

_ 송은영(전 태백교육장)

영어열풍 _ 김상남(강원관광대학교 관광과 조교수)

문화 칼럼

봄눈 내린 검용소 숲길

송은영

신비의 땅 태백은 검용소가 있기에 더욱 신비로움을 더하는것 같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서해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되기위해 한강의 시원을 찾아 거슬러올라와 시원이되는 연못으로

들어갈려고 몸부린친 자국이 남아있는곳이 검용소라합니다

검용소를 보노라면 용의 모양을 어찌도 그리 닮았는지 신기하고 여기서 시작된물이 서해까지 흐른다니 뿌듯한 자부심을 가짐니다

친구의 길 안내를 위하여 검용소를 갔습니다 봄눈이내린 검용소 숲길은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롭기까지 하였습니다. 발목까지 덮히는 눈길을 걸으며 하얀 눈을 뒤집어쓴 나무들이 각각

다른모습의 눈꽃을 피우며 한데 어우러진 모습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꽃에 취해 신선이 사는곳이 이런곳이 아닐까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숲을 지날 때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햇빛도 신비롭고 하얀눈이 솜이불처럼 나뭇가지를 감싸고 온 산야를 품고있어 포근함과 순백의 세계가 세상의 모든 잡념을 잊게하는 생글생글 웃는 아기의 눈망울을 보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그 때 '딱'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보니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것을 보았습니다 . 사람의 눈에는 아름답기만 한 이 눈꽃도 나무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세상만사가 뜻대로 되어지는것이 아니라 조물주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한그루 한 그루가 제몫이 있듯이 사람 한사람 한사람에게도 제 몫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눈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온것이 아니라 땅이 물방울을 품게하고 물방울은 잠자는 나무뿌리에 젖을 물리게 하여 잠을 깨워 마른 가지에 싹을 틔우게 하려는 조물주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봄눈 내린 검용소

죽은 것같은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고 푸름이 더하면 온 산천은 풍요로움을 뽐내고 가을엔 잎사귀를 떨어뜨리는것이 어찌 나무의 생각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부모 우리나라를 내가 선택하여 세상에 태어난것이 아니라 조물주의 뜻에 따라 주어졌고 단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우리 삶은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란 연극무대의 배우이며 주어진 배역에 최선의 연기를 해야하며 관객은 오로지 조물주뿐입니다. 즐거움 사랑 보람 고통 질투 증오 욕심, 많은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보잘것없는 것에도 아름다움을 찾는 자세 낮은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과 늘 불만과 고통을 느끼며 남위에 군림하려 하고 잘난체하며 사는 사람을 조물주는 어떻게 볼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손과 두 발을 못박히고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숨을 거두며 '다 이루었다' 고 한 성자는 주어진 몫을 다 했기에 인류에게 어둠속에서도 밝음을 증오를 사랑으로 이끌어낸 영원히 꺼지지않을 빛이며 검용소의 눈꽃보다 아름답다 하겠습니다.

사람은 서 있을 때는 신에 가깝고 누워있을 때는 동물에 가깝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부족한 사람이기에 인생이란 연극 무대에서 신이 추구하는 선과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지만 다 이루지 못한 연극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한참 더 상념에 잠겨 서 있으니 얼음장 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꽁꽁 언 얼음을 깨고 물 한 모금 마시니 온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산다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며 산다는 것은 일생에서 새로움을 찾을 때 기쁨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봄눈이 아닌 봄비가 내리겠지요

지구의 온난화와 태백

"덥다 더워" 란 말을 올해처럼 자주한적이 없다.

불볕 더위란 말이 실감나고 기상 관측이래 기온이 가장 높은 해였으며,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가 발령되고 수도권 및 충청권 영호남권 의 초중학교는 개학을 늦추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반도만 폭염으로 고생한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등도 폭염으로 발생한 열사병으로 수백명이 사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현상이라니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지은 업보에 대한 응답이라 하겠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과학자들이 예측하던것 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동식물의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목(나라나무)인 소나무도 사라진다니 씁쓰레하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2040년에는 태백시와 대관령면만 온대기후이고 모든 국토가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니 끔찍하다 하겠다.

손님 접대 관계로 오투리조트와 태백선수촌을 방문하였다.

매년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올해는 태백의 날씨에 흠뻑 빠져 태백 예찬론자들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느냐 공기 맑고 시원하고 더위에 지쳐 축 쳐진 육신이 이곳에 오면 생기가 돋고 보약 몇재 먹는것 보다 월등히 몸이 좋아진다고 한다.

국가 대표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서 기력이 쇠했을때 태백선수촌에서 닷새만 있다 가면 기력이 회복되어 경기력이 향상 된다고 한다.

육상선수가 심폐기능과 지구력을 키우기 위하여 오는 줄 알았는데 양궁을 비롯하여 구기 종목 선수까지 이곳에 와서 훈련한다고 하며 함성을 지르며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았다. 태릉선수촌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지구의 온난화와

위하여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고 에어컨에 의지하다 보니 냉방병 증상으로 호흡기 질환과 근육통이 발생하여 경기력이 떨어지는데 태백선수촌은 이상한 마력이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사람 건강에 제일 좋다는 해발 650m~700m는 이곳 태백이 아닌가

황지 연못이 해발 680m이니 이곳은 사람 건강에 제일 좋은 곳이며 온통 산으로 둘러 싸여 있기에 맑은 공기를 항상 마실 수 있으니 아니 좋을 수 없다.

모두들 태백은 서늘한 기온과 맑은 공기를 상품화 하여야 한다고 한다.

노령 인구가 늘고 연금 수급자가 수십만명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퇴직자들이 공기 맑은 필리핀에 한인타운등을 조성하고있다.

노령 인구가 늘고 도시는 매연으로 건강을 해치고 기온은 오르니 지구 온난화는 태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문제는 태백의 의료 수준이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들을 돌볼수있는 의료진과 의료 시설이 있어야겠다.

태백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이 많다. 그 분들 대부분이 이곳을 떠나는 이유는 의료 수준이 문제라는 것이다.

노년이 되면 몸에 이상이 있기 마련이고 종합병원에 가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병든 몸으로 장거리 여행도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태백에 살고 싶어도 태백을 떠난다니 아쉽다.

일자리 창출, 교육의 질, 의료의 질은 도시 기반 형성의 3대 축이다.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질은 젊은이의 몫이고 의료의 질은 태백이 실버타운이 되는 지름길이다.

강릉 아산병원이 세워진 다음 강릉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것은 의료 질 향상이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다.

문화 칼럼

영어열풍

김상남

지금 대한민국은 영어 때문에 교육몸살을 앓고 있다. 영어조기교육이 어린이집부터 시작하려한다. 영어조기교육을 도입하는 어린이집은 입학경쟁률이 치열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미 영어교육이 늦었다고 해서 일찍부터 영어열풍에 들어서는 것이다. 미국의 조지아주 아틀란타 지역에 조그마한 백인 부촌에서는 한국에서 온 유학 및 취업하는 사람들의 지역공립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줄을 서야한단다. 이제는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현지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영어열풍이 거세다.

영어열풍 이대로 놔둘 것인가? 실제로 한국에서 공교육에서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이다. 초3, 중3, 고3동안 영어를 평균 매주 6시간정도 공부를 한다. 그렇지만 영어공부 10년을 해도 영어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그저 시간만 10년 흘렀지 영어가 늘지도 않고 오히려 영어 때문에 학업적 자존감이 떨어져 학습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역효과도 나타난다.

학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가운데 학업적 자존감은 공부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때 모든 교과목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다. 즉 어떤 과목이든 한 과목에서 만이라도 자신이 자신 있는 과목이라면 그 영향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과목이든 실패나 좌절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다른 과목에도 그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 영향을 주게 되어 모든 과목에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로 학업에 임하게 되면 공부의 효과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영어로 인하여 떨어진 학업적 자아개념은 결국 모든 과목에 영향을 주게 되

어 학습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영어에 자신이 없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학습은 전체적인 학업적 자아개념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영어교육보다는 학습습관 형성이 중요

영어 조기교육에 대하여 반대하는 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유아시절의 영어교육은 아이들에게 자기의 정체성 및 한국 민족의 고유습관과 관습을 생활과 교육속에서 체득해야 하는데 영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습득하는 기간을 놓치게 되고 결국은 일생을 통하여 영어 종속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영어는 학문이 아니라 말이다. 미국 거지도 영어는 잘한다. 그 이야기는 영어는 일상의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이지 노력해서 얻어지는 학문이 아니다. 논리적 사고력이나 추리력, 상상력, 호기심을 자극해서 인지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인지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암기하고 사용하고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언어이다. 어린 시절에는 영어 때문에 자칫 잊기 쉬운 학문하는 끈기와 습관을 영어 때문에 습득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논리적 사고력, 상상력,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활동중심의 조기교육과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인내력, 집중력등을 키워주는 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영어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학습능력들이 소외되는 교육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영어를 공부하는 단계

고2를 둔 어느 엄마가 아이의 영어학원비용이 한달에 30만원정도 든다고 하며 힘들다고 하소연 한적이 있다. 난 단호하게 그 돈 가지고 매달 맛있는 것을 사먹고 영어시키지 말라고 상

담을 해주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여서 영어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영어를 하기 때문이다.

영어를 공부하는 데에는 단계와 방법이 중요하다. 영어는 언어이다. 다시 말하자면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즉 유치원시절에는 말로 영어를 배워야 한다. 비고츠키의 언어발달 이론에 의하면 언어 습득장치가 유아시절에 급속도로 발달하여 초등 3,4학년이면 언어발달 장치는 작동이 느리게 된다. 즉 유아시절에는 언어를 감각으로 배우는데 중고이후에는 언어를 학문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 유학하는 아이들을 비교하여 보면 어렸을 때 오는 아이들, 유치원시절에 오는 아이들은 영어를 1년이면 미국아이들과 같게 공부한다. 그런데 미국에 오는 시기가 늦을수록 영어습득능력은 떨어져서 중학교때는 약 2년 고등학교때는 4~5년이 영어를 배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된다. 대학시절에 유학을 와서 영어를 하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영어를 배우고 그래도 김치발음이 남게 되어 미국인처럼은 영어를 하지 못한다.

어린시절에는 영어를 몸으로 배우지만 나이가 들면서 영어를 몸으로 배우는게 아니라 머리로 배워야 하고 반복적인 암송과 노력을 기울여야 영어가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영어를 배워야 하는 시기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초기에는 영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어발달 기능이 떨어지는 중학교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영어를 하게 되니 영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실제 사용하는 영어가 아니라 문법중심의 영어를 하다 보니 그것을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로 영어공부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국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어 전체적인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영어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영어교육은 공교육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초, 중, 고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의 대폭확충과 실

제 영어 수업에서는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영어교실은 한반에 최대 12~15명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영어단어 퀴즈를 매일 매일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단어시험을 매일 치른다. 이렇게 하지 않을 바에야 영어도 하나의 선택과목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과목으로 취급해야 한다.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공허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업시간에 영어로 하는 수업이 있어야 하고 회화중심의 과목이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 성인기의 영어는 문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단어와 문법을 머릿속에서 암송하여야 영어가 나온다. 성인기의 학습구조는 논리적 구조로 변화되었기에 논리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여야 머릿속에서 영어가 떠오르게 된다. 성인기영어는 기초적인 문법을 먼저 공부하여야 한다.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추천했던 영어교육방식은 먼저 맨투맨 기본영어 두권 짜리를 최소 5회를 반복해서 공부해야 한다. 물론 단어정리는 필수, 지문과 영작문제도 반드시 연습해야 한다. 이 책을 최소 5회 정도 하면 영어의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온다. 우리는 책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습관이 없다. 학문을 하는 책이면 최소 5회 정도 반복해야 머릿속에 들어온다. 한번보아서는 단기기억에만 머물고 장기기억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단기기억은 공부한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면 다 망각해서 기억에 남는게 없다.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영어가 마치면 맨투맨 종합영어 5권짜리를 해야 한다. 종합영어는 조금 더 많은 지문과 설명 그리고 영작,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것도 5회를 공부해야한다. 단어정리와 암기는 필수, 영작 및 해석도 필수. 이렇게 공부하고 Reading교재를 선택해서 장문들을 보기시작하면 영어가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온다. 또한 Voca 30000을 선택해서 5회 정도 반복해서 공부하면 영어가 자신 있어지고 재미가 있어진다.

공부 할 때는 Shower Effect라는 것이 있다. 즉 공부할 때 많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샤워기의 물이 많이 나와야 비누거품이 제거 될 수 있다. 공부할 때 30분하는 공부는 효과가 없다. 집중해서 두시간 정도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영어는 하루에 최소 두시간 이상, 매일 세시간 정도는 해야 영어공부효과가 있다. 하루 공부양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루에 한

시간하면 영어를 포기해야 한다. 두시간 이상 투자하고 매일 세 시간 영어에 2년 투자하면 영어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공부를 해보고 안 된다고 해야지 안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결론

영어가 망국(亡國)어가 되면 안 된다. 영어 때문에 유아 및 초등시절에 이룩해야하는 한국인으로의 정체성 및 학업 습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어 때문에 학문의 기본습관인 논리력, 사고력, 추리력등을 기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영어를 아이들이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원어민들과의 대화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인기에는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하루 두 시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영어를 제대로 할수 있다. 영어는 학문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간만 많이 투자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공부이다. 영어 때문에 다른 공부에 지장을 주어 전체적인 학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하는 영어가 되어야 한다.

김 상 남
(강원관광대학교 관광과 조교수)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 교환교수
강원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장

태백문화
The Taebaek Culture Journal

문화 기고

동이

_은영선

문화 기고

동이

은영선

1. 동이(宇天需麗明朝鮮凍棟邦地圖貊濊骸陸鈺溪迷撈壽水海夷族)

殷晩基 語錄

저의 고조부(殷貞杓)께서는 박식하셨고 선견지명도 있으셔서 한해의 풍작작물을 골라내셨다. 당시 군위군에 들어서면 고조부 땅을 밟지 않고는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고조부는 뛰어난 자질의 친인척에게는 도움을 주었는데 공직에 오르고 위대한 작품을 집필하는 자손을 소망해서였다. 고조부는 총명한 맏손자(殷晩基, 은영선 조부)에게 재산을 일임하며 소망을 이루라 명하였는데 공직보다는 위대한 작품을 우위로 정하였다. 조부는 세계역사에 통달하고 역학(易學)에 조예가 깊고 결함의 풍수를 보완하는데 귀재(鬼才)였으며 평생을 동이예법을 고수(固守)하신 동이다.

저는 잠시 조부모 댁에서 지내다가 서울로 올라와 초등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때 조부모를 찾았지만 다툼이 일상이셨다. 조모가 돌아가시고 조부는 저의 가족과 살게 되었다. 그 때가 1970년대 끝자락으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조부는 감기를 달고 다니는 코흘리개 손녀(은영선)에게 동이가 되길 강요했다.

"나는 경상북도 유림학자들께 지속적으로 서신을 드렸고 서두에는 '인류의 통치역사는 천부인(天符印) 3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글귀를 넣었다. 어느 날 경상북도 유림학자께서 서신을 보내왔는데 글귀로 인해 찬반토론이 벌어졌으니 이론적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세계지도를 첨부해서 글귀의 합당함을 지적하는 서신을 보내드렸다. 유림학자께서는 다시금 토론을 벌였고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모든 과정을 사초(史草)에 기록해 달라고 요청했고 유림학자께서는 '전국의 유림대표가 모이는 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출하여 채택되도록 하겠다.' 고 약속해 주었다. 너는 '천부인이 인류통치역사의 시작 이라는 글귀가 사초에 기록되는지 확인하여라."

조부께서 저에게 명령하셨다. 고등학생인 저에게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다. 벙벙한 저에게 조부는 한술을 더 뜨셨다.

"1970년대 중반어 되자, 나는 국운(國運)에 대한 대비책을 학문적으로 작성해서 대구지역의 유림학자께 전달하려했다. 서신내용에 대통령 퇴임부분 때문인지 웃돈을 제시해도 전달자가 없었다. 이웃에 사는 E가 '어르신 이야기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서신전달이 나라님(대통령)을 위한다니 제가 이 기회에 나라님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하는 거였다. 한문도 모르고 땅도 없이 하루벌이로 사는 E의 말에 나는 감동을 받았다. E는 대구의 유림학자께 서신을 전달하여서 내 뜻과 동일하다는 회답을 받아왔다. 내가 보낸 서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 변화의 시기로 정치지도자가 합심하였다면 민주주의 꽃은 활짝 피었다. 만개(滿開)해야 할 민주주의 기운이 쌓이게 되면 부풀어 오르고 그다음 단계는 폭발이다. 폭발하는 국운에는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며 총을 들게 되는 빌미가 마련된다. 폭발국운 단계까지 치닫는 것은 유림(儒林) 탓이다. 통치자는 영웅과 역적 사이에서 외줄을 타는 신세이기에 군왕이 역적의 길로 가는 것은 상소(上疏)를 게을리 하는 유림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성군칭호를 받으려면 통치출발부터 국민에게 동의를 얻는 철차를 거쳐야 한다. 무기로 시작된 통치는 퇴임이 두렵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나의 주장은 경상북도 유림학자께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경상북도 유림은 폭발국운에 대해 경상남도 유림께 전달하고 동의를 얻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유림의 합의사항은 다시금 호남(湖南)지역 유림께 전하여 뜻을 모았다. 영호남 유림께서 합의한 사항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예를 갖추어서 전국의 유림께 알리기로 했다. 그리되면 유림의 대표 성균관장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평화로운 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통령퇴임 후에 야당지도자(김영삼님, 김대중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통령직에 오르면 국민도 생업에 열중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제일의 국가가 된다." (군위신문(인터넷) '가위바위보' 참조)

조부는 개똥잔소리를 퍼부었다. 저는 개똥에 맞설 묘안으로 조부의 도박빚 300만원을 아버지가 갚은 경력을 들먹였다. 조부께서 변명을 했다.

"조부(殷貞杓)께서 나에게 재산을 일임한 이유는 후손의 공직과 위대한 작품 때문이다. 내가 정의를 품고 도박을 해도 조부 뜻에는 어긋나기에 도박 빚을 갚으려고 논밭을 팔 수 없었다. 장

남(은영선 부친)에게 연락하느니 차라리 죽으려고 못 먹는 술을 마셨다. 그런데 돌아가신 조부께서 나타나서 '군자는 치부를 드러내는데 표범의 무늬처럼 선명해야한다' 며 회초리로 때리시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정신을 잃은 나를 깨우려고 아버지가 때린 거였다. 아버지가 논밭을 팔자고 애원하였지만 나는 장남에게 전화했다. 서울에서 장남이 오는 동안 아버지와 나는 마음을 졸였는데 6.25전쟁보다 더 무서웠다. 장남에게 혼 줄이 났지만 처음으로 수치와 죄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다. 나는 도박의 이치를 깨달은 후에 그 비법을 공개하여 세상에서 도박을 사라지게하고 싶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도박에서 이기지 못했다."

어린애수준인 조부의 변명에 저는 대꾸도 귀찮을 지경이었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도 도박은 파악하지 못해요. 풍수, 토정비결처럼 선견(先見)이 들어간 학문은 정도(正道)에서 출발하는데 도박은 속임수잖아요. 할아버지는 간단한 것도 모르는데 국운 폭발은 믿을 수 없어요."제가 쏘아붙였다.

"나보다 나은 네가 환쟁이가 되려하니 걱정이다. 삼국유사를 한문원본으로 읽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너의 근본은 문학이다. 나는 언제나 너의 독서를 살폈다. 너는 중학교 때 '광복30년사' ' 세계2차대전' 을 읽었고 나와 토론을 벌였으니 정세에 관해서는 숙지한 거다. 무기로 시작된 정권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는 총질이다. 총만 가지고 놀던 아이들에게 대통령은 부모인데 상속의 언질도 없이 떠난다면 어떻겠는가? 이걸 해결해야한다. 대학은 재수(再修)가 있지만 밀어닥치는 국운에는 반수(半修)도 없다."

조부의 닦달은 대학입시가 코앞인 저에게 날벼락이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응급실을 들락거렸기에 등교(登校)도 버거운 상태였다. 1026이 일어났다. 조부는 당신의 부족함을 탓하면서도 고집불통인 손녀를 원망했다. 저는 극단을 결심했고, 아버지가 저의 마지막 편지를 발견하였고, 엄마의 고성이 이어졌다. 저는 조부에게 고향 행을 부탁드렸고 부모님도 동참하였다. 조부는 마지막 편지를 보고도 유관순열사를 운운하며 대학입시에 안달하는 손녀를 힐책했다. 조부로 인한 집안의 불화는 참담함이었다. 저에게 싸늘한 성격이 있다면 조부 때문이다. 저는 간신히 미술대학에 들어갔다.

조부께서는 본격적으로 성화(成火)를 드러내셨다.

"만개(滿開) 국운에서 1026은 폭발을 일으키기 위한 폭죽에 불과하다. 정치에 대한 이론과 경

험도 없이 총만 가지고 놀던 40~50대 아이들이 폭발을 바라보며 정신이 온전하겠나? 후일 아이들 몇 명에게 사탄이나 역적칭호를 붙여 해결된다면 무엇을 걱정하겠나? 아이들을 인정한 집단과 증오한 집단 모두 후대에는 역적의 시대를 살았던 국민이 된다. 역적이 휘몰아치는 시대에는 국운이 상실되어 재정이 바닥나는데 그걸 좋은 말로 부도(不渡)라 부르지만 나라가 망하는 거다. 망한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광부 간호사 월남전 사막에서 피땀으로 이룩한 알짜를 외국에 파는 작태(作態)를 해야 한다. 옥죄어서 겉모습을 회복시켜도 실추된 국운에서는 빚이 쌓여간다. 그 피해는 후손으로 전달되어 100년 후에는 국가의 존망을 장담할 수 없다."

조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설득했다. 혼자서라도 밀려드는 국운을 막겠노라며 합수부행(行), 광주행을 고집했다. 저는 조부를 진정시켜야했다.

"군웅(群雄)이 할거할 때는 몸을 낮춰서 세상을 달관하는 게 군자의 도리입니다, 유림께서도 해결을 못하는데 할아버지와 저의 힘으로는 결단코 막을 수 없습니다."

저의 단언에 조부께서 닦달을 포기했다. 지금생각해보면 조부의 제시사항은 설득력이 있고 전국의 유림대표께서 합심하여 진행시켰다면 국가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518이 터졌다. 조부는 밥을 못 드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시국을 등한시 하는 저에게 전과(轉科)를 종용하였다.

"너는 내가 주장하는 국운대비책을 부당하다고 설득하여 포기시켰다. 정치는 학문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근본과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총장님께 정치학과 전과(轉科)를 부탁드리고 허락을 받을 테니 너는 미술대학 교수님께 전과요청을 말씀드려라. 정치학과 교수님께서 너를 거절하면 내가 손녀를 책임지고 예습 복습시키겠다고 무릎을 꿇고 간청하겠다."

조부의 말에 저는 개그맨이 되겠다고 응수했다. 광대라 칭하는 개그맨을 들먹였으니 조부의 기겁은 대단했다. 연예인에 열광하는 손녀인지라 허풍은 아니었다. 조부가 저의 눈치를 보며 말문을 열었다.

"당나라 시대에 중국본토는 각축장에 비유될 정도로 열국(列國)출신 인재들의 경쟁이 치열하였고 학사(學士)칭호는 별보다 어려웠다. 은(상나라 수도명칭 殷墟) 성씨는 상층부류였고 학사반열에 올랐다면 중국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 당나라가 관리(官吏)를 상주시키려하자 신라는 지원공모와 시험을 치룬 학사를 받겠다고 응수(應酬)했다. 당나라 정부는 한반도 변방(邊方) 신라에 지

원자가 전무(全無)라며 거절하는데도 신라는 공모시험 비용을 지불하여 관철시켰다. 공모가 발표되자 관리시험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지원자가 넘쳤는데 덕망 높은 은자(隱者)들의 지원이 몰렸기 때문이다. 은자를 귀히 여기던 당나라 정부는 화색하며 상위의 합격자는 관리로 채용하고 일부를 한반도로 보내려했다. 상위합격자들 특히 은자들 대부분이 한반도행을 고집하였고 정부의 갖은 회유책도 허사였다. 당(唐) 정부는 한반도행 합격자에게 출국(出國)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인원(人員)에 의해 전쟁승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정부에 한반도행 서류를 요구하는 합격자가 넘쳐나고, 그들 곁으로 동참 인재들이 몰려들고, 모두가 합심해서 재산을 팔고 노동을 해서 출국세금을 납부하여 실행에 옮겼다. 당나라에서 신라로 가는 도중 많은 이들이 죽었고, 상당수는 고구려에 남았고, 일부가 백제와 신라에 도달했다. 한반도행은 중국역사서에 반란으로 기록되는 엄청난 사안으로 진실을 밝히려면 목숨을 걸어야했다. 나는 사랑방 문학모임 덕분으로 한반도행에 관한 진실을 기록한 서적을 접하였다. 한반도행 합격자 중에 8학사로 뽑혀서 신라로 건너와서 태자태사(太子太師) 보문각대제학 관직에 오르신 殷洪悅(은홍열)께서는 한반도 은 성씨 조상이 되셨다. 殷洪悅보문각대제학을 비롯하신 덕망의 은자들께서 목숨을 걸고 한반도로 온 연유는 무엇인가?"

조부께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다. 저는 '한반도가 중국보다 우월한 풍수 때문이라' 고 즉답했다. 한반도가 우월한 풍수를 가지게 된 핵심을 묻는 조부의 질문에 저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조부가 말씀하셨다.

"지구에서 성씨 은(殷墟)) 시조는 宇天, 麗明朝鮮, 濊, 태호황제(太昊皇帝), 伏羲,여와,神農(炎帝))으로 이어지는데 동이족(宇天霊麗明朝鮮凍棟邦地圖貊濊骸陸鈺溪迷撈壽水海夷族)이시다. 夷는 '온화하고 모범이 되는 형제자매집단' 의미인데 후일 오랑캐 단어를 첨가해 넣었다. 나는 조부의 제사에는 宇天, 태호황제, 공자, 사마담, 은홍열대제학 음식을 함께 차려서 지냈다. 동이로 은허(殷墟)의 세사(世嗣)이신 사마담 공자께서는 성씨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상도 배척당했다. 그분들의 사상을 이어가는 곳은 한반도로 홍익인간이 바탕이라.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사상의 번창은 기본이다. 군자는 사상의 옳고 그름을 가려 시대와 조화를 이루도록 힘쓰는 것이 덕목이라."

조부는 태초(太初), 하늘조선, 환웅조선,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큰하늘이 엎드리는 술통(伏犧)이 된 연유, 신채호선생의 천국 매장사태, 울분 금서룡까지 장황한 설명을 이어갔다. 저는

조부의 잔소리를 막는 타협으로 개그맨을 버리고 그 대신 조부는 정치관심을 끊기로 했다. 그동안 시아버지의 정치열정으로 고달팠던 엄마가 안도했다. 조부는 그림전공에는 여전한 태클(tackle)을 걸었다.

"나에게 삼국유사를 전수받아라. 혹자는 삼국사기를 체재나 문장에서 낫다하는데 삼국유사의 깊이를 숙지(熟知) 못한 소리다. 정감록이 비기(秘記)라지만 삼국유사에 비하면 어린애라. 펄벅이 위대한 문학가라 하여 웃돈을 주고 '대지'를 구해 읽어 보았는데 번역가 실력이 모자라서인지 읽는 시간이 아깝다. 영문본 대지를 읽기위해 영어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일본말, 중국말의 높고 낮음도 어렵지 않은데 영어는 꼬부랑해서 다음날이면 잊어서 포기했다.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궁금해서 성경책을 5번 읽으니 암기가 되었다. 그 이후 보려니 지루하더라. 삼국유사는 앞으로 뒤로 모두 외워도 매일 읽는데 지루함은 없다."

조부는 삼국유사에 각별함을 내비쳤다. 미술을 싫어하는 조부처럼 저도 삼국유사를 미워하겠다고 쏘아붙였다. 조부께서 화들짝 놀랐다.

"조부님과 나에겐 삼국유사가 경전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눈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데 이유는 찬란한 사상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에 주변을 배려해서다. 실인(室人)에게 선경을 마음으로 읽어라 애원했지만 듣지를 않아도 군자의 도리를 지키며 참았다. 너도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를 기억하겠지. 조부께서 나에게 각별한 당부를 하며 맡기신 삼국유사를 내실이 찢고 욕을 해대니 이성을 잃게 되더라. 부부지간에 때리고 맞는 것이 짐승이라 배웠는데 서러워 통곡하였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혼을 허락하였다. 나는 실인에게 어울리는 착하고 부지런한 교인을 물색해서 동의를 얻었고 아버지도 그를 만나보았다. 나는 실인에게 재산을 주고 딸들도 항시 만나도 되니 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라고 권유했다. 실인이 내 제안을 거절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아버지에게 '독도로 가고 싶지만 수영을 못하니 어렵고 환웅천제(天帝)께서 계시다는 태백산으로 가겠다.' 고 말씀드렸다. 아버지가 소실(小室)을 제안하였고 나도 실인과 헤어지는 방안이라면 택하고 싶었다. 소실을 들이기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학문에 열중하였고 부부생활도 부모님이 챙겨주었다. 나의 학문집착은 변함이 없을 테고 소실에게도 구박당할 것이다. 초등학생 장남이 집안 사정을 짐작하고 '삼국유사가 귀중하지만 사람에 비하겠느냐' 며 나와 아버지에게 호통을 쳤다. 실인에게는 '아버지의 서

책에 엄마가 손톱이라도 건드리면 제가 나서서 서모(庶母)를 들이겠습니다.' 하였다. 장남에게서 서모호칭이 나오니 내실이 놀랐고, 나는 소실을 맞는 위기를 모면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인지 삼국유사가 봉변당한 이후 집안이 기울어져갔기에 이 사건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조부께서 참담한 심정으로 설명했다. 저는 아버지를 붙잡고 확인하였는데 '나에게 끔찍한 상처였는데 손녀에게도 그 아픔을 전달합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십시오.' 하며 화를 냈다. 아버지가 당신의 부친에게 화를 내건 처음이었다.

조부가 조건부로 미술전공을 허락해주었다. 글을 쓰는 작가가 되면 그림은 수묵화로 한정하라는 거였다. 만화도 그림이라는 저의 대꾸에 조부는 숯돌이(story)가 있어서 만화는 이야기책이라 했다. 저는 에스파냐 내란이 소재인 피카소 게르니카(Guernica), 선경을 모태로 그린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을 설명 드리고 미술서적을 보여드렸다. 조부는 서적을 일일이 보며 문학, 역사, 신화, 우주가 함축적으로 표현된 미술에 대해 감탄하셨다. 조부가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다. 장손이란 책임감으로 자식보다는 형제를 먼저 챙겨야했다. 자식들은 신식교육을 열망하는데 가뭄은 이어지고 직장을 구하려니 허약한 몸에 기술도 없고 나를 학문에만 몰두시킨 조부님을 딱 한번 원망해보았다. 그 와중에 회복기미가 없는 막내딸 때문에 거금을 들여야 했다. 조부의 넋두리에 지난날이 떠올랐다. 어지럼증을 토로하며 날개구리를 여러 번 삼키던 모습이었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조부는 자식들을 위해 식사를 거르고 있었다. 막내딸을 출가시키고 생활이 안정되어도 한학에 매진한 조부이기에 미술서적으로 눈을 돌리기는 어려웠을 테고 가격도 비쌌다. 초등학생인 저를 1년만이라도 훈육을 시키겠다는 조부의 바람을 부모님은 만류했는데 코피를 달고 다니는 딸을 시골로 보낼 수 없었다. 조부는 지난날을 주절주절 털어놓으며 미안함을 보였지만 저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다.

조부께서는 근심이 깊어지는 만큼 잔소리도 방대해졌는데 그 내용을 적어본다.

"삼국유사에는 엄청난 에나지(energy)가 숨겨져 있고 그 원천은 하늘에서 시작된 조선의 기록이다. 조부께서는 일평생 하늘조선 백성으로 사셨기에 나도 그 뜻에 따랐다. 조부께서는 일본인도 환웅천제의 백성이니 깨우쳐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사랑방에는 며칠씩 묵어가는 학자들이 많았기에 자연스레 중국문학 모임이 만들어졌다. 나는 조부의 명으로 아기 때부터 사랑방에서 키워졌고 글을 배우고부터는 중국문학 모임을 이끌어갔다. 일제강점기가 되자 사랑방은 경계

의 대상이 되었고 아버지가 의구심을 해소하려고 일본경찰관을 초청하였다. 일본경찰관은 중국 문학 지식을 갖춘 조선인통역관을 뽑아서 참석했는데 나를 보자 어린애라 무시했다. 나는 일본 고서를 공부하여 터득한 일본어로 '중국역사를 글로 써서 겨뤄보자' 고 제안했다. 통역관이 당황했다. 일본학자도 어렵다는 고어(古語)를 촌구석의 애가 써대니 일본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였고, 일본인 A가 확인하러 왔다. A는 기겁하면서도 화색이 만발하며 '고어에 능한 학자를 만나지 못해 적적했는데 조선에 온 보람을 찾았다' 고 말했다. A의 방문이 잦아지자 나는 궁금증을 질문했다. 일본경찰관은 옆방에서 쉬고 고어에 대한 안도감 때문인지 A는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동행하는 일본경찰관보다 A가 직급이 높지만 각자의 상부에 보고하는 체계였다. 이유는 을사조약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군부는 조선황실을 협박해서 목적(乙巳條約)을 이뤘을 때는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하찮은 일(かっぱのへ[河童の屁])이라 여겼다. 그런데 총부리에도 중국문학을 읽으며 '무식한 일본' 글씨를 휘갈겨대는 양반들이 많았다. 본복이로 한 마을의 양반을 몰살시켰는데 노비들도 주인의 필체를 옆에 두고 무식한 일본을 써댔다. 경악한 일본경찰이 일본군부로 위급요청을 했다. 일본군부는 교수와 교사 차출을 계획하였지만 반발에 부딪쳐서 학예사로 만족해야했다. 학예사는 일본경찰관보다 양반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동태를 살피는데 적격이었다. 임무는 양반의 소장품 고서(古書)를 판별하여 일본으로 보내는 거였고 A도 그 과정으로 차출된 학예사였다. A는 나와의 대화에는 일본정부를 일본군부(軍部)라고 칭했다. 사마담에 심취한 A는 학술지발표 시점에 식민지공무원으로 차출되었다며 참담해했다. 나는 사마담을 존경하던 조부님 덕분으로 상당한 지식을 쌓아놓았기에 A의 놀라움이 컸다.

마을의 학자들이 모인 어느 날 A가 나에게 사마담에 관한 시를 지어보라 요구했다. 나는 A의 학문을 가늠하고 그와의 친밀감도 시험해보는 시를 지었다.

'총칼방석에서 신선 사마담을 논하니 이곳이 우주라
이 자리를 만들어준 당신 A는 사마천에 비할 텐가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께서는 태양이 확실하다.
태양이시여 劉徹(유철)의 광영으로 세계를 비추시오 '

옆자리의 학자께서 황급히 나의 시를 해석하겠다고 했다.

'최신병기와 함께 사마담을 논하니 과거 현재가 조화를 이룬다.

동이

사마천이 있다면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A에게 고마워하겠다.
태양이 밝게 빛나는 화창한 날에 즐거운 모임을 만들었으니
한무제가 중국을 통일한 시절처럼 태양이 세상을 비추는구나. '

학자께서는 자신의 시를 A에게 건넸다. 내용에 만족한 A가 나의 시를 요구하였고 학자가 손을 떨며 건네다. A 얼굴이 붉어지더니 학자들에게 나의 시와 해석시가 같은지를 질문했다. 모두가 나의 시에는 사색이 되었다가 해석시에는 안도하며 동일한 내용이라 말해주었다. A가 '께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질문했고 나는 모른다고 답했다. 통역관이 천황이라고 말했다. 일본경찰관이 한무제와 유철의 관계를 질문했다. 통역관이 태양 옆에는 중국의 황제도 이름으로 쓴다고 말했다. 일본경찰관이 나에게 께 앞에 천황글자를 넣으라고 했다. 조선에서는 일반인이 왕의 칭호를 적지 못한다고 내가 답했다. A가 학자들에게 진위를 물었고 모두들 동의했다. A가 일본도 배워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본경찰관이 나의 시를 가져가려하자 통역관이 조선에서는 왕이 들어간 글은 함부로 옮기지 못하고 태운다고 말했다. A가 동의하여 모두가 마당에서 엄숙하게 내 글을 태웠다. 일본경찰관, A, 통역관이 돌아가자 학자들이 아버지에게 훈계를 주었다. '우리도 아들의 시와 같은 마음이지만 일본놈에게 마을이 쑥대밭이 되니 일자무식이 살아남는 비결이다'

그 후 학자들은 모임참석을 거부했고 마을에서는 내가 천왕찬양 시를 지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도 그렇고 학자들께서도 해명을 못하니 마을사람이 아버지에게 친일을 비난하며 따귀를 때렸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던 아버지는 손찌검 사람이 은인이라며 고마워하였다. 통역관에게 후한 사례를 주었는데도 상당하게 돈을 뜯어가서 섭섭했다.

한 달 만에 나를 찾은 A가 '너의 집이 우주이고 일본이 태양인 걸 학문적으로 증명하라. 한무제를 유철로 칭한 합당한 이유를 들어라. 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일본제국 공무원인 나를 능멸한 죄로 사살한다.' 라고 말했다. 나는 시를 쓸 때부터 A의 질문을 기대하였지만 현실로 닥치니 부들부들 떨렸다. 그런데 A도 떨고 있었다. 위급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시한구절로 살인자가 되는 학예사 A였다. 나는 웃으며 하늘조선을 설명했다.

'인류의 시작 하늘조선에서 하늘은 우주를 의미한다. 위만은 하늘조선을 계승하였지만 유철은 그러지 못했으니 폭도와 다름없다.'

A의 노여움과 떨림이 사그라졌는데 그는 하늘조선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는 A에게 '일본 황실

에는 하늘조선 기록물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질문했다. A가 '일본고어를 사용할 때는 거짓을 말할 수 없으니 답변을 거부 한다' 고 말했다. 나는 A의 대답에 울분이 솟으며 눈물이 났다. 내가 A를 쏘아보며 '하늘조선을 알면서도 적통자인 나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느냐? 너는 일본고어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고 말하자, A가 놀라며 적통자를 증명하라고 했다.

나는 대대로 내려오는 내용에 문중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천제(天帝)계보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태초, 貊濊, 神農(炎帝), 여와, 비슈누(헌원조상), 社貿爰, 愛昆蘭, 率盧謀를 비롯하여 한문과 일본어로 기입한 일본시조 천왕(神倭伊波禮琵古命, 神日本磐余彦尊)이 적혀있었다. A가 놀람 감격 허탈이 교차하는 감정을 드러내더니 시조천황 작성자를 데려오라고 했다. 내가 시조천왕 이름과 일대기를 적어나가자 A가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소책자를 꺼내 확인을 했다. 놀란 나는 A가 걱정스러워 연유를 물었다. A가 설명하기로는 '대부분의 학예사들이 조선에 발을 들이고부터 천왕의 기억이 사라져가기에 일본에서 천왕기록 소책자를 급조(急造)하여 보내주었다' 고 했다. 내가 소책자 열람을 요구하자 A가 망설였는데 이유는 일본천왕계보는 일본경찰관도 고위직이 되어야 간직할 수 있다고 했다. 아버지가 문밖을 지키는 동안 소책자를 건네받아 살펴보니 시조천왕 기록에서 날짜오류가 있었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니 A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너는 조선황제의 신하이냐' 고 질문했다. 내가 웃으며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조선의 황제를 받드는 신하이고 영혼은 하늘조선의 적통자다. A의 영혼도 나와 똑 같다 '고 답했다. A의 얼굴이 밝아지며 '나의 육체는 일본황실의 신하고 정신은 하늘조선의 백성이고 일본황실은 적통자다.' 고 말했다. 놀라는 나에게 A가 합심하여 시를 지어보자고 했다. A가 웃으며 적통자가 먼저 시작하라고 했다.

나의 시, 맑고 푸르른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구나.

A의 시, 별을 보고 싶은데 이곳은 태양빛이 길다

나의 시, 밤이 되면 별이 무수(無數)하고 유성도 쏟아진다.

A의 시, 일본은 안개가 많아 태양보기가 힘들다.

나의 시, 구름이 물러가면 창공(蒼空)은 더욱 높아진다.

A의 시, 이곳 군위가 우주란 말이 진실이구나.

나의 시, 우주와 유성을 만났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A의 시, 우주는 놓아두고 유성은 가져가고 싶다.

A가 유성은 적통자를 의미한다고 했다. 내가 A에게 신세한탄을 했다. 아기시절부터 사랑방에서 키워진 이유가 과거급제인데 을사조약으로 과거가 없어졌으니 무엇을 하며 살지 걱정이다. 나의 넋두리에 A가 작심한 듯 자신은 황실의 밀명으로 파견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조선황실이 일본의 강경군부세력에 의해 감시를 받듯이 일본황실도 같다. 강경군부는 일본황실을 방패삼아 전쟁을 일으키고 패전하면 일본황실에게 책임을 전가할 계획이다. 지금도 일본군부는 조선황실에서 일본황실을 흡수할거라 협박한다. 이런 사항은 일본국민도 모르기에 일본황실의 사정을 서방에 알리기 위해 파견되었다. 나는 조선에 진출한 서방세력과의 접촉이 임무인데 시골로 발령이 났고 일본경찰의 감시도 심하다. 신분이 발각되면 일본경찰의 강압에 황실을 거명하게 될까봐 잠을 못 잔다. 너를 황실장학생으로 일본유학을 추천할 테니 하늘조선이 건재함을 일본황실에 전해주면 안도할거다.'

A의 말에 욕심이 생겼다. 나도 일본유학이 간절했지만 잘못되면 일본황실의 도움을 받은 역적이 되는 상황이었다. 옆방에서 쉬던 일본경찰관이 아버지에게 A가 아들에게 학문을 전수했으니 대가로 사마담 서책을 내놓으라며 타지방의 쑥대밭 전례를 들먹였다. 조부께서 상당량의 순금을 지불한 사마담 사적(史籍)필사본을 내놓아야했다.

사마담 필사본은 소장자들의 서명과 사연이 적혀있고 한시문법이 아니라 한글 일본어 문법과 같은 동이문법으로 기술되었다. 조사(助詞)는 한자로 작게 썼는데 당시의 말이 훈민정음(1443년, 세종25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놀랐다. 나는 갑골문자를 기대하며 설레었는데 부수와 획수 정도의 차이여서 실망하였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사마담의 인품과 애절함에 눈물이 떨어졌고 소장자의 글에서 '죽음이 기다려지는 건 사마담의 발톱을 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 있는데 나는 사마담과 결혼하고 싶었다. 중국인들은 생소한 문법과 문체를 대하니 보물지도나 외계암호처럼 느꼈을 것이다. 사마담 글에서 조사를 제외하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된다.

'太初 宇宙 溢閶蔰霞廈 光速砒三飛 太陽系 啓明星 迷金星 太白星 熊釗 天道功 挑禍東方 遷度 凍棟邦 道化 地球 天桃 星金 緋秘

棟樑太白星 東方 皿矢平 始發命衆 凍棟邦 世界系階層 地球

萬物始作 凍棟邦 棟樑太白星命衆世界系階層 地球自字凔蓀 心思浪腸愛慕 母胎

凍棟邦 麗明朝鮮寅時卯時辰時((곱고 환한 아침이 깨끗한 시간) 拜謁(身體直面眉向東方

沃沮東向洞蓮莖境濊鈺溪迷撈壽水海地圖) 根 吸收吸水 東西南北 育身肉身堉臣,靑龍白虎朱雀玄武句陳螣蛇神 禪頭 應答

凍棟邦(天海陸 夏地球 比較 臺垈) 名稱 宇天需麗明朝鮮凍棟邦地圖貊濊骸陸鈺溪迷撈壽水海夷族 '

나는 沃沮東向洞蓮莖境濊鈺溪迷撈壽水海地圖 뜻을 몰라 며칠을 고생하다가 '옥저에서 동향市區邑와 접경지역 예(濊)의 보배로운 물은 열심히 농기구를 잡아 장수하는 물이 있는 바다地圖' 임을 알았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서책 뒷부분에 한반도지도 일본지도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예(濊)는 조선(凍棟邦麗明朝鮮)에서 금강산, 인제를 포함하여 함흥에서 영덕에 이르고 壹列島(일본)의 반을 차지하는 막강한 부족연맹체였다. 바다명칭도 凍棟邦濊海였다.

A는 沃沮東向洞蓮莖境濊鈺溪迷撈壽水海地圖를 읽더니 바로 뒷부분을 확인하였는데 사마담 필사본에 관한 사전지식이 있었던 거다. A는 '사마담을 친견(親見)하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엉엉 울며 서책에 절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예의 후손으로 일본에서 사마담 필사본을 구했는데 지도와 설명부분이 찢겨나갔다. A는 일본황실에 계속해서 자문서신을 보냈고 '답을 할 수 없는데 부정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일본황실에는 사마담 필사본이 존재하고 일본의 根이 濊라 짐작하고 있었다.

A는 조상의 뿌리濊를 찾아서 울고 아버지와 나는 사마담 필사본을 빼앗겨서 통곡하였다. A가 황실에 전달할 국보란 말에 일본경찰관이 부동자세가 되었다. A가 사마담의 필사본을 얻은 과정에서 일본경찰관의 지대한 공로를 보고할 테니 필사(筆寫)하는 여유를 달라고 부탁했다. 일본경찰관이 황실보고에 자신을 넣어 달라 거듭 부탁했다.

A가 일본으로 복직되며 나를 추천하여 면사무소에서 취업연락이 왔다. 나는 내심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일본사람 추천으로 취업하면 진짜로 친일이라며 반대하였다. A는 사마담 논문을 발표한 후에 나를 일본으로 초청하는 서류와 일본화폐를 동봉하는 서신을 몇 차례 보내왔다. 나는 일본유학이 가고 싶어서 병이 났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느니 친일하겠다며 나에게 일본행을 허락하였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장손으로 아버지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조부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저는 A의 논문애 대해 질문했다.

"논문집을 보내달라는 나의 요청에 소식을 끊었던 A가 사과편지와 논문집을 보내왔다. A는 논

문에 오류가 많지만 당시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沃沮東向洞蓮莖境濊鉇溪迷撈壽水海地圖는 '삼척 앞바다의 섬'을 지칭하는데 A는 논문에 地圖를 地島로 고쳐 일본열地島라고 했다. 그 이유로 대한민국에는 宇를 지칭하는 나라가 없고 삼척은 濊가 아닌 실직국이고 鉇溪 迷撈壽水 한자를 가진 지명도 없다는 거였다. 내가 삼척군청으로 여러 번 전화해서 예가 실직국보다 앞선 역사이니 예국 예부족을 역사로 인정해주고 鉇溪 迷撈 壽水 명칭을 넣어 달라 애걸을 해도 거부당했다. 황지읍 사무소로도 전화를 했다. 논문을 받았을 때 A를 매장하고 싶었는데 하늘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잘못임을 깨달고 많이 한탄했다."

조부께서 낙담했다.

제가 沃沮東向洞蓮莖境濊鉇溪迷撈壽水海地圖 위치를 묻자 조부가 되물었다. 저는 凍棟 地圖 뜻은 '아름답고 얼음처럼 매서운 용이 사는 지도를 그리듯 단장된 땅'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지칭하는데 과거에는 宇자와 圖자가 들어갔을 거라 즉답했다. 조부가 감탄사를 연발하며 좋아라하셨다.

"너는 하늘조선이 한반도 역사임을 증명하는 동이다. 울릉도는 옛 이름이 于山國인데 宇자가 于로 圖자가 國으로 변했을 것이다. 사마담은 凍棟邦麗明朝鮮濊海에 凍棟邦麗明朝鮮地圖가 있다며 그곳에 관해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놓았다. A는 凍棟뜻을 춥다 옥 주석으로 해석해서 조선에는 주석이 없으니 沃沮東向洞蓮莖境濊鉇溪迷撈壽水海地圖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네가 한문을 공부해서 동이의 염원을 이뤄라."

저는 조부의 뜻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사마담 필사본도 빼앗기고 삼국유사도 없는 판국에 무엇을 하겠냐고 항변했다. 저의 짜증에 조부께서 설명하셨다.

"중국에는 太初의 시작은 貊濊라는 역사서가 수두룩하다. 일본황실 비밀서고에도 백제 가야 신라에서 건너간 고서가 쌓여있고 그곳에는 하늘조선 기록이 널려다. 조부 때부터 사랑방에는 실크로드를 따라 세상을 돌아다닌 스님들과 학자들이 북적였고 나는 그들 품에서 자랐다. 그들은 세상에는 하늘조선 서적이 보물처럼 숨겨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의 노력과 조부님의 염원이 합쳐져서 나도 한때나마 사마담을 품었다. 사마담 필사본을 구해준 사람은 세 차례나 대가를 거절하였는데 '태어날 손자가 사마담을 암기해독(暗記解讀)하여 세상에 알릴 일물'이라는 이유였다. 그 말이 일평생을 옥죄어서 사마담의 학문을 전파하는데 헌신하였지만 부족함이 너무나 많다. 너에게 나의 지식을 전달할 때는 물 한 그릇을 떠 놓고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보며 이야기한

다. 거실 앞마당에는 감나무 대추나무 향나무가 심어져있고 장남이 광산개발업자에게 얻은 강원도 수정원석이 있다. 나는 월일화수목금토 천지만물(天地萬物)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에게 진실을 전해준다. 네가 나의 서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려우면 너의 대학교 역사교수님을 찾아뵙고 소장품 모두를 넘겨주고 싶다."

조부가 적은 소장품 목록을 역사교수에게 전했지만 어수선한 시국 때문인지 호응이 없었다.

조부는 '명당을 부정하던 실인이라 좋은 묘 자리가 눈에 띄지 않았는데 내 묘를 찾으려니 명당이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 죽는 건 겁나지 않는데 누울 자리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내가 학문에 몰두(沒頭)하여 세상사를 통달한 이유는 천만년을 이어온 하늘조선을 후대에 전함이다. 나의 삶이 한반도의 반쪽 세월도 억울한데 나라의 백척간두(百尺竿頭)를 해결 못하면 저승에서 어찌 열성조(列聖祚)와 이순신장군을 뵈올 것인가? 명당에서 후손기도가 소원인데 위급을 방치한 죄인이 어찌 명당을 더럽히겠는가.' 하며 애통해했다.

조부는 거듭해서 '네가 동이 뜻을 펼치면 웃으며 시름을 놓겠다.' 하였다.

1980년대, 조부는 당신의 실인 곁으로 가셨다.

2. 국운상승(國運相承:선조에서 다음세대로 이어지며 하늘조선을 전하는 마음)

나는 몇 편의 저서를 가진 작가가 되었고 그 공은 조부의 은덕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조부의 바람을 실천하고 싶다. 조부는 독도(于山島, Dokdo, www.ulleung.go.kr)가 '평화를 기원하는 명당' 이라고 주장하셨다. 이제는 그 생각을 따라야 한다.

독도경비대, 潘基文(United Nations, 國際聯合) 장충식(대한적십자사), 최진학(서울대학병원), 김진선(평창올림픽), 사공화열(사자대상 모란장), 홍순태(서울올림픽 공식기록 사진가), 김한수(샘바다 井海), 박지원(진도군), 김문수(경기도청), 박원순(서울특별시청), 김수환(경찰청), 어기수(강원도청), 박선규(영월군청), 박노욱(봉화군청), 홍순왕(동해시청), 박원희(삼척시청), 윤명한(울진군청), 신능균(서울신문사), 김동훈(KBS), 조진숙(교수), 신신범(연극인), 남양성모성지, 장우영(홍천군), 묘향(홍련암), 최도환(재경대구경북), 전경중(타임즈), 이현수(충주제1비료공장), 김학기(강원대학교), 안영배(원광대학교), 시대의 양심 이종주(문학사랑(이사장 김주영))……

세계인이여, 계시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일 년에 한번 일초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조선, 홍익인간(弘益人間, humanitarianism), 인류번영"

태백문화원 장화윤 사무국장에게 부탁합니다. 개천절(開天節)에 거행되는 태백산 천제 행사에서 세계인의 기도를 우주에 올려 주십시오.

"지구(earth)는 가로돛을 올리고 우주(宇宙)를 향해 순항을 시작했다. 중간 기착지(寄着地)는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3. 부연설명

〈사마담〉

중국 전한(前漢, 기원전 206년~기원후 8년)의 역사가이며 사상가로 천문, 주역(周易), 도론(道論)에 통달하였다. 황실의 전적(典籍), 천문, 달력에 관한 기록을 맡은 부서에서 장관직책 태사령(太史令)을 지냈다. 황실전적을 모으고 정리하여 사적(史籍)을 썼다.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의 아버지다.

조부는 사마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마담은 동이로 봉선의식을 전례(東夷典禮)에 따랐고 아들 사마천도 동이비술로 훈육시켰다. 사마천은 낭중이 되어 무제의 눈에 들자 사마담의 봉선의식을 비판했다. 사마천은 태산에서 거행된 봉선의식에 사마담을 배제시키고 무제의 예법대로 거행하였다. 그 사건은 분열로 이어졌고 태사국에서도 신구(新舊)갈등이 폭발하고 사마담에게 울화병을 얻게 했다. 사마담은 사적을 사마천이 완성하는 조건으로 태사령을 물려주었는데 동이문법에 뛰어났기 때문이다. 태사령에 오른 사마천은 근신하며 사적완성에 매진해야 되는데 이릉을 두둔하여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때 사마담을 따랐던 태사국의 원로들이 사마천에게 사적을 완성해주면 궁형으로 감형되도록 무제에게 상소를 넣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무제는 무소불위 제왕이라 태사국 원로들의 제안은 목숨을 내놓는 사안이었다. 태사국 원로들은 사마천이 사마담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궁형에 처하는 대신 목숨은 살려주라 청했다. 태사국 원로들도 사형하라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무제는 사마천에게 궁형을 허락했다. 사마천은 뉘우치고 사적 완성에 매진하였지만 사마담의 뜻은 누락시켰는

데 방패막이 태사국 원로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자신과 무제의 행동을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사마담의 염원 동이를 남겨놓았다. 그 내용은 상나라 황족(아홉 동이)중에서 홀로 은허를 지키던 마지막 동이인 백이의 죽음을 한시문법(漢詩文法)이 아닌 동이문법(文法)으로 남겼다.

人白夷叔齊: 사람(人)을 우선시하는 백이(白夷)를 사모(叔)하는 것은 똑 같다(齊)

나는 사마담의 학문을 흠모하면서도 사마천 훈육이 부족함에 성토가 많았다. 그러나 나의 장남도 삼국유사보다는 서양문물을 　는 걸 보고서야 사마담의 울화병를 깨달았다.

〈조부의 소장품 삼국유사에 대하여〉

조부가 소장하던 삼국유사는 양주익(梁周翊 1722년(경종2)~1802년(순조2))이 손수 엮은 것이다. 梁周翊은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어 병과로 급제하여 병조참의에 오른 문신이다. 글씨와 시문에 능하였고 역학과 성리에 밝았으며, 천문 · 지리 · 음양 · 산수 · 병법 등에도 능통하였다. 梁周翊은 정치개혁을 추진하며 모함을 겪었고 그로인해 울화병을 얻어 요양하던 중에 집안에 보관되어있던 무극(無極, 一然의 제사)이 간행한 삼국유사를 읽게 되었다. 모함이 부족한 덕에서 생겨났음을 깨달은 梁周翊은 無極의 제자가 되어 호를 무극(无極)으로 하고 삼국유사 내용을 한자 한자 필사(筆寫)하여 책으로 엮었다. 근본이 하늘에서 시작하여 환웅천제(天帝) 단군성조(聖祚)로 이어짐을 깨달은 梁周翊은 자신이 엮은 삼국유사를 일연스님 전(前)에 올려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梁周翊 후손들은 前 의미를 고심하다가 몇 대 후손 대에서야 일연스님 입적지방이라는 괘를 뽑았다. 후손이 남원에서 군위까지 걸으며 호랑이와 도적을 만나 알거지로 쓰러졌는데 저의 조상집 앞이었다. 후손이 조상에게 梁周翊삼국유사 해결을 요청하였지만 인각사가 폐사위기였다. 후손이 문중의 상의(相議)를 고심하기에 조상이 비용을 들여 파발 편에 사연을 끼워 남원으로 보냈다. 문중에서 괘를 얻어 다시금 군위로 서신을 보내왔는데 인각사보다는 조상집이 조금 낫다는 답이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저의 고조부는 梁周翊 필사본 삼국유사를 소장하였다.

〈은영선 소장품 강원도 수정원석에 대하여〉

저에게는 1972년쯤 아버지에게 받은 수정원석이 있다. 수정원석은 아버지가 지인(知人)에게 선물을 받았다. 지인은 유리상자에 수정원석을 보관하였기에 무척이나 아름답게 빛났다. 저는

동이

수정원석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엄마는 버리라고 화를 냈다. 저의 울음에 엄마는 마당에 놓는 걸 허락했다. 제가 수정원석의 고향을 궁금해 하자 아버지는 지인의 말이 단양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일 년 후 저는 병원에서 포기할 정도로 아팠는데도 수정원석을 걱정했다. 엄마는 저의 병을 수정원석 탓이라 여겼고 오빠에게 변고가 생기고부터는 확고해졌다. 저는 수정원석을 버리려는 엄마와 갈등이 많았다. 대학교 때 초면의 수덕사 老스님이 역사를 품은 귀한 수정원석이라고 해서 위안이 되었다.

저는 미술학원을 개원(開院)하여 그곳에 수정원석을 놓아두었다. 나처럼 미술학원생들은 수정원석을 보면 집중력이 생긴다며 좋아해주었다. 나는 착하고 해맑은 학원생들을 집으로 데려갔고 아이들을 확인한 엄마는 수정원석을 인정해주었다. 미술학원을 정리하고 수정원석을 종이에 싸서 책장에 넣어두고 존재를 잊었다.

2002년 친분의 두꺼비보살이 '땅속에서 나온 다섯 수정미륵 중에 한분인데 종이에 말아 처박아두었다. 수정원석이 물가에서 나왔으니 아끼는 수반에 올려놓고 햇볕이 드는 곳에 두라' 고 조언했다. 저는 미술학원생 외에는 수정원석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엄마와의 갈등을 떠올리기 싫었기 때문이다. 두꺼비보살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했다.

'지인의 우환은 금 때문이고 수정미륵은 출생지를 속여서 섭섭한 마음이다. 수정미륵은 예술을 위해 세상에 나왔는데 스님이 잠시 욕심을 부렸지만 임자를 찾아 주었으니 복을 받았다. 아버지는 딸을 지목한 스님을 위해 덕담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정미륵을 받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인이 출토지를 속인 이유는 모르겠다.'

저는 두꺼비보살 조언대로 수반에 수정원석을 올려서 장식대에 두었다.

초면(初面)의 분들이 수정원석을 참견한 사연을 간략하게 나열해본다.

1. 경기도 한 사찰의 스님이 수정미륵을 달라고 했다. 스님은 수정미륵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저는 황당했다.
2. 법흥사에서 초면의 老보살이 '수정미륵이 강원도에서 출토되었는데 숨기는 것은 금과 수정의 무분별한 채굴을 염려해서다. 이제는 국민들이 국토의 소중함을 알고 있으니 출토지를 공개해도 된다. 수정미륵은 한반도의 아름다움을 위해 나왔는데 그걸 알리는 방법은 예술이다. 나는 영월군이 출토지라 믿는다.' 고 했다.

3. 태백시에서 초면의 원장이 '도력이 높으신 스님들이 수정미륵을 원하지만 소유할 수 없다. 엄마가 수정원석을 꺼리는 것은 딸을 염려하는 마음이니 이해해야한다.' 고 충고해주었다.
4. 두꺼비보살이 단양군 사찰로 저를 끌고 갔다. 그곳에는 중국산 옥을 미륵으로 조성하여 점안식 준비로 분주했는데 두꺼비보살도 첫 방문이었다. 절밥을 찾는 저의 모습에 다섯 분의 老보살들이 직설적으로 훈계(訓戒)를 했다.

'세상사를 통달한 우리를 놓아두고 하늘예가 깃든 수정미륵께서는 저이에게 갔을까? 광산개발 사장을 수정맥으로 인도한 것은 하늘예고 수정원석을 세상으로 꺼낸 힘은 고려미륵이다. 작가양반은 이 말 뜻을 모르지. 저런 사람이 그림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된 것은 엄청난 학덕을 지닌 조상 공덕이다. 작가양반이 이곳에서 점안식을 보면 보관중인 수정미륵도 점안식을 받는 것이니 얌전히 앉아있으오. 수정미륵 출토지역에서 돌을 가져와 협시불을 세워야하는데...'

노보살들은 저의 신상명세서를 줄줄 읊더니 지인 스님 아버지를 설명하고 수정원석 출토지가 단양이 아니고 강원도라 장담했다. 구경하던 보살들도 가세하여 의견을 내놓더니 강원도로 결정을 내려버렸다. 남자들이 충청도에서 왜 강원도가 이기냐며 참가를 주장했다. 보살들과 남자들은 수정미륵을 논하다가 정치로 주제를 옮기며 한바탕 소란을 즐겼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저는 아버지에게 수정원석 출토지를 질문했고 강원도 답변을 들었다.)

5 . 저는 성지에서 성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을 즐겨한다. 미모의 외국여자가 저를 보고 '커다란 수정은 '성모님눈물' 입니다' 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아름다운 보석을 '성모님눈물' 이라 칭하기에 이해는 하지만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다. 영어실력이 모자라 포기했다. 그런 경험이 2번 더 있다.
6. 서울 봉은사, 마곡사, 울진군, 용주사 등에서 초면의 분들이 수정원석을 참견했다.
7. 삼척시의 주지스님이 저에게 수정미륵을 모시는 사람이라며 방 한 칸을 내주면서 삼척시에서 출토된 수정미륵이라고 확언했다. 그 증거로 제가 오래전에 삼척시의 바닷가에서 돌5개를 가져간 것을 거론했다.

저는 아버지에게 수정원석에 대해 질문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지인과 스님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지인은 강원도에서 탄광채굴 회사대표로 돈을 모았다. 지인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채굴기술과 재력으로 금과 수정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유는 한반도가 금과 수정이 산재한 아름다운 국토임을 알리고 후대에 광물자원을 남겨주려는 집념이었다. 지인은 각고의 노력으로 금과 수정 광산을 발견했다. 수정광산 허가를 위해서 꺼낸 5개의 원석 중에 남겨진 원석은 소중히 보관하였다.

어느 날 아들에게 사고가 생겨서 고민이었는데 우연히 방문한 사찰의 스님이 '깊숙한 땅속에서 세상으로 나온 다섯 분의 수정미륵이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증명할 수정미륵이니 나의 절에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동안 지인은 금과 수정 광산을 비밀로 하였기에 초면인 스님의 말을 믿었다. 스님의 요청에 수정원석을 시주했지만 절에 우환이 생겨서 지인에게 되돌아왔다. 지인은 손님들이 올 때마다 수정원석 사연을 이야기하며 적임자를 찾았다. 수정원석이 귀하고 미륵이란 사연도 지녔기에 고액(高額)을 제시하는 유명인이 많았지만 스님은 여식을 가진 제복(制服을) 입은 남자를 지목했다.

어느 날 스님이 수정미륵 임자를 알려준다며 지인 집을 찾았다.

'계속해서 수정미륵이 어느 집을 찾아가서 가족을 만나는 꿈에 시달렸다. 가족은 제복남자, 남자의 부친, 남자의 부인이 있었다. 수정미륵은 언제나 방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는 여자아이 품에 안겼다.'

스님이 꿈 설명을 마치고 방에서 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지인 얼굴만 보고 황급히 돌아갔다. 스님은 지인에게 '저 사람의 여식이 그림을 그리다가 글을 쓰는 작가가 되어 수정미륵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 며칠 후 지인은 스님의 꿈을 아버지에게 설명했다. 아버지는 '초등학생 딸은 화가가 꿈인데도 책을 많이 읽는데 코피를 자주 흘려서 공부하라는 잔소리도 안한다. 아들이 수정원석을 알린다면 가져가겠지만 딸의 것이라면 사양하겠다.' 라고 말했다. 지인의 간곡함이 계속되자 아버지는 1972년쯤 수정원석을 가져왔다.

아버지는 사연을 설명하며 수정원석을 세상에 알리라고 했지만 엄마가 결사반대했다. 제가 이유를 따지자 변명하던 엄마에게서 '금' 단어가 튀어나왔다. 아버지는 저에게 사연을 알려주는 대신 금내용은 함구하라 당부하였다.

'지인은 거대한 수정맥을 발견한 후에 금맥을 확신하였고 만류하는 부인을 내팽개치고 돈을 쏟았다. 금맥이 발견되고, 아들에게 변고가 생기고, 부인이 병에 걸리고, 그런데도 지인은 투자자

를 모았다. 부인이 권유하여 받게 된 건강진단에서 지인은 중병이란 검사결과를 받았고 채굴은 무산되었다. 아버지가 우연히 지인이 보관하던 지도와 금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지인은 금과 지도를 보게 되는 타인(他人)이 있다면 주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아버지에게 금과 지도를 주었다. 아버지는 아내의 완강한 반대를 설명하며 지도와 금을 거절했다.

지인은 '나는 횡재하는 마음으로 금과 수정을 찾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의 재력과 능력을 쏟으며 발품을 팔아서 금과 수정 지도를 작성했다. 사업을 접으며 투자자들이 광물지도를 원해도 나는 배상을 택했다. 진정으로 국익을 　는 사람에게 이 지도를 주고 싶다.' 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아버지는 '금은 채굴부터 유독성 화학약품이 들어가니 채굴당사자와 그 가족도 중병에 걸린다. 후대가 목적이라면 금맥을 발견하고 중단해야했다. 수정원석은 약속대로 내 딸에게 전해주었으니 지도를 태워버려라. 우리가 밥을 굶어가며 대한민국을 지킨 이유는 국토가 소중하기 때문이지 우리자신을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와 당신이 국가에 헌신한 건 우리가 국가이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지인은 '스님이 금은 후환이라며 거절하면서도 수정원석은 무척이나 탐냈다. 수정원석 주인으로 당신의 여식을 지목하자 내가 스님에게 불만을 토로했는데 지금에서야 연유를 알았다. 내가 발견한 수정광산에 당신과 여식을 데려가지 못해 한이다.' 고 말했다. 지인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지도를 태웠고 얼마 후 유명을 달리했다.

아버지가 지난날을 떠올리며 지도와 금을 거절한 것을 아쉬워하자 엄마가 단호하게 옳은 선택이라고 했다. 행복한 만석지기재력가였던 저의 외조부(張憲達)는 금광(金鑛)대표가 되고서 풍파가 들어오며 파산하였고 엄마는 그 폐해를 뼈저리게 겪었다.

지금도 수정원석은 후미진 구석에 처박혀있다. 언젠가는 수정원석이 '성모님눈물' '수정미륵' 으로 지칭되어 한반도의 아름다움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문화
기고

〈필자 : 동이 은영선(author:sanghee eun)〉 www.eunyoungsun.com/

학 력

서울시 단국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서울시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미술학 석사)

자격증교원자격증 (중등학교2급 정교사 미술)

직업훈련교사 면허증(노동부)

경 력

HAYATT HOTEL DESIGN DEPT. Artist

거삼 정치문화연구원 홍보실 디자인 팀장

영선 미술학원 원장

그림 전시회 2회

(서울 인사동 갤러리 '도올')

(울진군 골길 용왕전)

저 서

가이공주(2차 저작권 등록번호:제 C-2012-020748호)

내 인생을 바꿔줄 행복여행(동아일보)

봉황의 나라(동아일보)

경기 전설과 문화(경기도정책정보잡지 에세이 연재)

청소년감성을 위한

스마트폰 사진공모전

지상전

2013 청소년스마트폰사진공모전 중등부 입상작

대상 | 도전 _ 김유리(황지여중)

우수상 | 비가내린 후 _ 이현승(황지중)

장려상 | 하늘아래 유채꽃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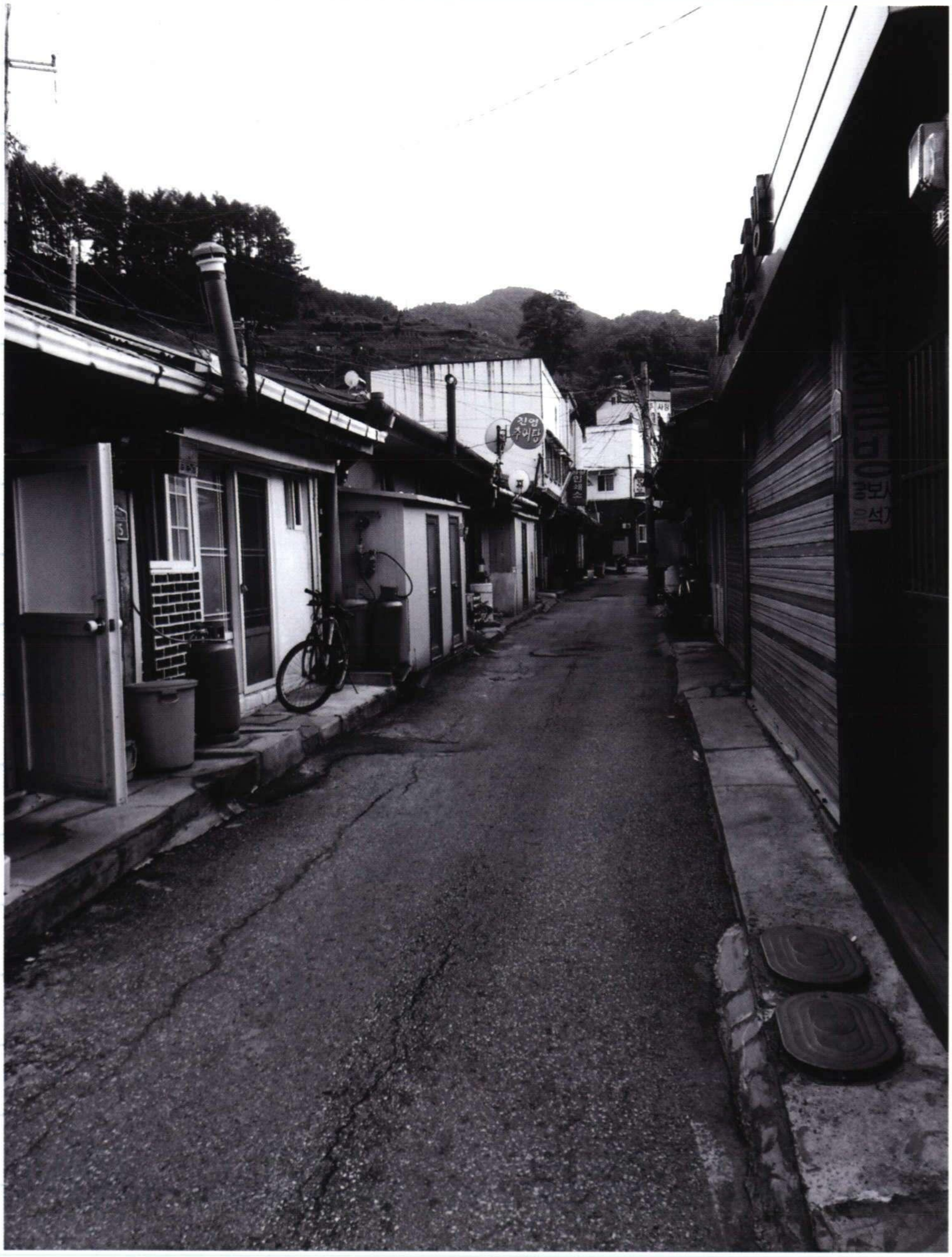
스마트폰지상전
학생부 입장작_중등부

입선 | 태백산 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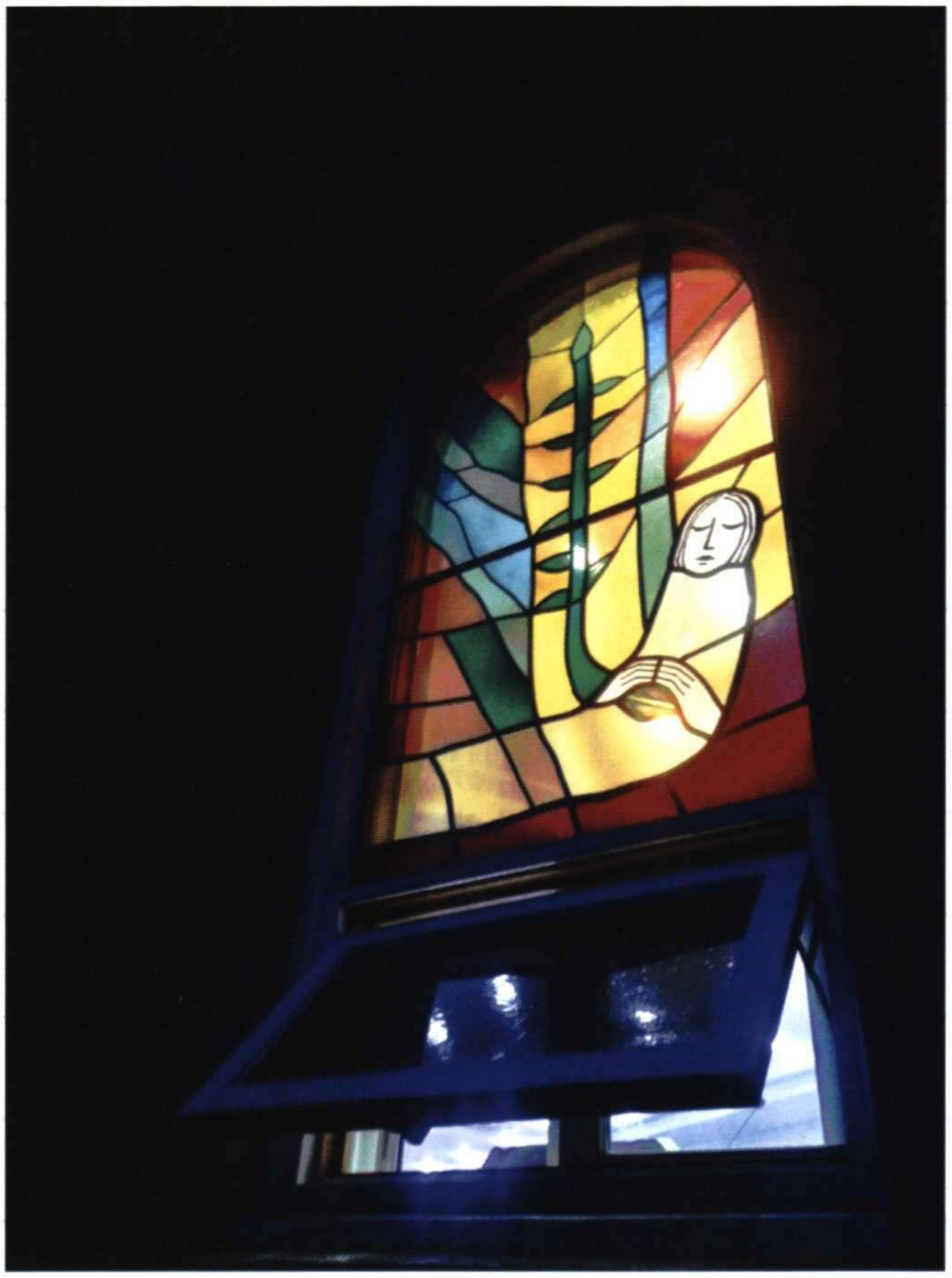
입선 | 주목 _ 김동현(황지중)

입선 | 우리 집에서 바라보다 _ 권은희(황지중)

2013 청소년스마트폰사진공모전 고등부 입상작



대상 | 골목길 _ 최원빈(황지고)



우수상 | 평안함 _ 김준섭(황지고)

장려상 | 세월의 흔적 _ 최혜빈(장성여고)

입선 | 철암의 추계 _ 민경부(황지고)

입선 | 친구들과 체육대회 _ 박서정(장성여고)

입선 | 함백산의 겨울 _ 한희정(장성여고)

2007
2013

TaeBaek Culture Center

태백시민의 문화공간 태백문화원

연 혁

1984. 01.	황윤덕씨 등 19명이 태백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984. 08. 17	문화원 공보부 법인설립허가. 황윤덕 초대원장 취임
1984. 10. 01	태백시 장성동 69-2번지에 태백문화원 개원
1985. 07. 18	운영위원 위촉 이진호씨 등 12명
1986. 12. 31	민속놀이 "태백갈풀썰이" 등 12개 사업완료
1986. 02. 27	제2차 정기총회 개최
1986. 07. 21	문공부로부터 정관변경허가. 부원장제도 신설
1986. 12. 31	청소년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15개 사업완료
1987. 02. 24	제3차 정기총회 개최
1987. 12. 31	"태백문화" 지 창간호 발간 등 13개 사업완료
1988. 03. 24	제4차 정기총회 개최
1988. 08. 16	임시총회 개최
1988. 12. 31	사시랭이발굴사업 및 웅변대회 등 10개 사업완료
1989. 03. 24	제5차 정기총회 개최
1990. 03. 06	제6차 정기총회 개최 – 정관개정
1990. 06. 13	문화부지정 90년도 시범문화원 선정
1990. 10. 16	임시총회 개최 – 김영훈 부원장선출
1990. 12. 31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 통기타콘서트 등 14개 사업완료
1991. 02. 26	제7차 정기총회 개최
1991. 12. 31	폐광기록사진집 "막장사람들" 발간 등 12개 사업완료
1992. 02. 27	제8차 정기총회 개최
1992. 12. 31	전통향토음식솜씨대회 등 13개 사업완료
1993. 08. 17	제3대 우성조 원장 취임
1993. 12. 31	효자비건립 등 15개 사업완료
1994. 04. 18	문화체육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 태백문화학교 설립인가
1994. 12. 31	문화학교 운영 등 16개 사업완료
1995. 02. 25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1995. 12. 31	태백문화 제9집 발간 등 15개 사업완료
1996. 02. 25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1996. 10. 25	신축문화원 원사 이전
1996. 12. 09	태백문화원사 준공식
1996. 12. 31	백일장 등 12개 사업완료
1997. 03. 11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TaeBaek Culture Center

태백시민의 문화공간 태백문화원

1997. 12. 31	한강대제 등 12개 사업완료
1998. 02. 24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1998. 12. 31	솟대복원사업 등 14개 사업완료
1999. 12. 31	제15차 정기총회 개최
1999. 04. 23	임시총회 개최 – 우성조 원장 연임
1999. 12. 31	태백학술대회 등 22개 사업완료
2000. 02. 29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2000. 12. 31	태백산천제 등 23개 사업완료
2001. 02. 27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2001. 12. 31	전통음식솜씨대회 등 23개 사업완료
2002. 02. 26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2002. 12. 31	초금연주회 등 21개 사업완료
2003. 03. 28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2003. 04. 15	임시총회 개최 – 제6대 김강산 원장 선출
2003. 12. 31	낙동강발원제 등 22개 사업완료
2004. 02. 25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2004. 12. 13	문화원사 증축 준공
2004. 12. 31	태백산천제 등 23개 사업완료
2005. 03. 22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2005. 12. 31	생활문화실천강연회 등 21개 사업완료
2006. 03. 07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2006. 12. 31	태백산천제 등 23개 사업완료
2007. 02. 26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 제7대 김강산 원장 선출
2007. 12. 31	태백산천제 등 21개 사업완료
2008. 02. 12	임시총회 개최 – 제8대 권영한 원장 선출
2008. 02. 15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2008. 12. 31	태백산천제 등 12개 사업완료
2009. 02. 25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2010. 05. 26	임시총회 개최 – 제9대 김강산 원장 선출
2010. 12. 31	태백산천제 등 12개 사업완료
2011. 02. 27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2012. 05. 25	임시총회 개최 – 제10대 김해운 원장 선출
2012. 12. 31	낙동강채수제 등 15개 사업완료
2013. 02. 27	제 29차 정기총회 개최
2013. 12 31	태백산천제등 17개 사업완료

2013 태백문화원 임 · 직원 명단

직 위	성 명	휴대폰	주 소
고 문	황윤덕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10 13번지
	장인원	011-372-8478	태백시 삼수동 253-27번지 자혜의원
	우성조	010-9581-2714	태백시 문곡소도동 27-9번지
	김강산	010-5364-3161	태백시 황지동38-46
원 장	김해운	010-5374-5885	태백시 삼수동 4통2반 문성사
부원장	배팔수	010-2369-3288	태백시 황지동 이화연립 306호
이 사	조미영	010-4370-9867	태백시 황지동 대윤@ 2-306
	이상출	010-2712-6089	태백시 삼수동 사랑의집 가동 102호
	김병철	011-363-1098	태백시 소도동 19 한솔@2-306
	김영호	010-9917-5161	태백시 동점동 498-42 10/3
	전영숙	010-2392-7354	태백시 상장동 18/8 시영@ 101-403
	김창진	010-3352-0010	태백시 황지동 229-16 주공1차 6-508
	양진모	010-6371-5074	태백시 황지동 대림4차 107호
	남주수	010-2288-6071	태백시 황지동 64-15 서울빌딩 4층 영동보험대리점
	이무영	010-6796-5445	태백시 장성동 147-23(유정웨딩홀.모텔)
	심우섭	010-9057-7444	태백시 황지동 7-19 1층 태백교차로
	박순기	010-5375-5124	태백시 상장동 유진2차@ 101-1101
	김순근	010-5192-2233	태백시 번영로 150 유진3차 1407호
	박미향	010-7262-4131	태백시 황지동 44-12
	박영숙	010-2665-7059	태백시 고원로 61 유진1차 502호
감 사	심금술	017-744-3876	태백시 창죽동 22-1번지
	이원섭	011-366-2539	태백시 황지동 38-161 금석당

사무국 | 사무국장 – 장화윤　　간사 – 김수빈　　주임 – 허주리

문화학교강사

구분	성 명	휴대폰	주 소
노래교실	김만식	010-5366-5793	태백시 황지동 선명1차 1105호
하모니카	이광수	010-8590-4206	강릉시 교동 3주공@ 303-1104
스포츠댄스	전인석	010-5373-2353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81-64
서예	박미애	010-8623-9983	태백시 화전동 3주공@ 301-402
요가	김종옥	010-3174-8166	태백시 삼수동 62-53번지 국민주택 21호
난타(모둠북)	권미숙	010-3847-3802	태백시 삼수동 팔마@ 1동 206호
구전가락	김덕식	011-370-4311	태백시 상장동 유진2차@ 102-601
토들러동작놀이	조영미	010-4735-4220	태백시 황지동 현대@ 101-601

태백문화 제 25집

우)235-019 태백시 태백로 1136 Tel. 033-553-3161 Fax. 033-553-2977
http://taebaekculturalcenter.com E-mail : tb3161@kcct.or.kr
발행처 태백문화원 **발행인** 김해운 **발행일** : 2013년 12월
인쇄처 문성사 Tel. 033-552-2318

이 책은 태백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무단 사용을 금함.

태 백 문 화 원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136
Tel. 033)553-3161 Fax. 033)553-2977
www.taebaekculture.com